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의 치유를  
위한 군목회 돌봄 프로그램 연구  
-CARE 4단계를 중심으로-



안남기 군종목사

## 1.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 동기

현대의 가정은 이혼과 별거, 가출과 배우자 구타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을 보

- 약력 :
- 장로회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학(Th. M.)
  - 천안대학교 대학원 기독교상담학 박사과정 중

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 우리 나라 청년들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자아정체성(identity)이 입시공부에 짓눌려 심리 사회적 유예(psychological moratorium)되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뒤늦게 한꺼번에 밀어닥치기 때문에 더 한층 격렬하고 긴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누군지, 어떤 가치관과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아까운 세월을 허송하거나 심하면 정신병적인 상태까지 발전하여 군에 입대하게 된다.

군대사회는 계급과 직책과 권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투집단으로서, 일반 사회조직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군 생활은 엄격한 통제와 규율이 요구되며,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과 일사불란한 단체행동을 필요로 한다. 또한 군에 입대하는 신세대 장병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개인 중심적인 생활태도가 순조롭게 용납되지 않는 문화 충격과 함께 심한 심리적 갈등을 일으킨다. 이들은 입대 후 군에서 요구하는 갖가지 지시와 규율에 대하여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며 구속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군대 안의 엄정한 군기와 규율 속에서 자칫 간과하기 어려운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가 고려되지 않아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병사들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역기능 가정의 배경을 지닌 병사들이다. 이들은 군 복무 중 다양한 복무 부적응의 형태로 증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역기능 가정의 문제들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군대에서 치료하고 돌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신상을 파악하고 예로사항을 들어주어 관리하지만 부대의 과도한 업무와

жат은 훈련 등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장병들을 돌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또한 병사들간의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데 장애물이다. 특히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들이 육체적인 상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내면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부들이나 동료가 도와주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돕는 방법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직자로서의 고유한 역할인 목회 돌봄을 다종교 공동체인 군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들은 다른 장병들보다 적응력이 부족하여 자살 및 탈영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연구는 현대의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군 공동체가 요구하는 비전투 손실 예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목회 본질을 잃지 않고 오히려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목회돌봄 프로그램의 필요에서 시작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C.A.R.E. 프로그램)

연구자는 프로그램을 종파를 초월한 모든 장병들과의 첫 만남에서 시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에서 ‘돌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영문 알파벳 첫 글자를 이용한 ‘CARE’ 4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두었지만 부대 특성 및 장병

들을 만날 수 없는 환경(예를 들면 군복 입기 후반부에 들어오는 신병들과의 만남은 제한되는 상황,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로 자대로 들어가는 우발적 상황들, 부대 고유임무)에 따라 프로그램을 단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1. 1단계 목회 돌봄 프로그램 - Contact

군복이 보직되어 있는 부대에서는 신병들이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전입을 오면 군복이 주도하는 교육시간이 있다. 이 시간은 군종교역에 있어서 목사와 장병들이 관계를 맺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것은 마치 상담 과정에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과 같다. 이때 형성된 밀접한 관계는 구체적인 돌봄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회가 되며 4단계 돌봄 목회 프로그램의 기초가 된다.

1단계 프로그램의 목표는 치유적 관계(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다. 친밀감(intimacy)이 형성되고 복음의 접촉점(contact point)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담관계에서 처음 보는 상담자에 대한 신뢰 형성 요인으로는 따뜻함, 보살핌, 좋아함, 관심, 존중이다. 또한 모든 형태의 심리치료의 과정에서도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은 치료적 관계(therapeutic relationship)라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목회 돌봄 1단계 프로그램은 상담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내담자가 용납하고 공감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처음 자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해 하는 장병들에게 자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 공동체나 사람을 통해서 손상되어지고 왜곡된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품어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과, 치유자

인 군복을 언제든지 다가오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좋은 대상(good object)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단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된 친밀감은 장병들에게 긴장을 풀게 해줄 뿐 아니라 나중에 상담자가 그들을 감정의 정화, 감정의 분출로부터 행동의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

## 2. 2단계 목회 돌봄 프로그램 - Approach

목회의 최고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다. 목회란 예수님에게 위임받은 사역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 요구되는 목회 돌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방황하는 인간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 단계이다. 특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장병들을 찾아가는 목회 돌봄의 단계이다. 찾아 나서는 것은 목회적 주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은 독특한 특성이다. 다른 전문직에서는 이런 주도권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목사의 지속적인 방문, 관심적 행동을 통하여 장병들에게 “함께 있어 주는”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목자의 이미지를 심어 주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성경적 진리를 중심으로 군복이 장병들의 영적, 정서적, 관계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목회 돌봄의 프로그램을 가장 다양하게 실천하는 단계이다. 2단계 프로그램은 자기 문제에 대한 분석과 통찰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궁극적

으로 장병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군대라는 환경이 가져다주는 선교적인 기회들을 충분히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심리학적 접근이나 상담학적인 방법의 접근을 통해서 건강한 인격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이 과정 속에 구원에 이르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이다.

### 3. 3단계 목회 돌봄 프로그램 – Recovery

2단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지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이었는지, 그로 인한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 그로 인해 자신의 성장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역동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현재 장병들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성인으로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단계에 있다. 3단계는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딛고 일어서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3단계 프로그램은 변화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원그룹을 통하여 억압되었던 고통스런 기억에 직면하여, 그와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가해자를 용서하고 수치심과 분노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아이에게는 과거의 고통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고통을 재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그에게 고통을 안겨준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3단계 프로그램

은 목회 돌봄의 고유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설교, 공동체의 지지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것이다. 집단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문제들을 성토했는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 4. 4단계 목회 돌봄 프로그램 – Encouragement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들은 치유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치유 후에 바른 성장을 돕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3단계 과정에 참여한 장병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인생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에 이들을 안전하게 헤쳐 줄 수 있는 관계, 즉 언제든지 다가오면 환영해주는 따뜻한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단계는 격려를 통하여 더욱 변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이다. 4단계에서는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성원들간의 교제를 통해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치유란 인간의 전체성을 회복시켜서 손상을 극복함으로써 인간을 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목회적 치유는 손상 이전의 환경을 되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고양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과거의 고통이나 어떤 정신적, 감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화되고 진정한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것이 4단계의 목

표라고 할 수 있다. 회복과 발전으로서의 치유는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치유를 통해 그 증상이나 현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 속에 즐거운 헌신과 섬김의 생활과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잡는 것이다.

### III. 프로그램의 구성

#### 1. 1단계 프로그램의 실제(Contact)

##### 가. 전입 신병들과 함께하는 열린 예배

##### (1) 이야기

역기능 가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을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출구는 그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안전감을 주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친밀감을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영혼 돌봄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공관복음에 나와 있듯이, 영혼 돌봄에 대한 예수님의 주요 방법은 대화였다. 따라서 열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야기이다. 의사소통은 열린 예배의 그 어느 요소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군 입대 후 전입 신병들은 부모나 교사들, 훈련 시절 교관들에게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던 환경이었다. 오늘날의 가정은 사회의 변천, 고도의 산업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정 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이 발견된다. 특히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들은 부모에게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장병들의 두려움, 우울함, 슬픔, 죄책감, 수치심, 분노 등의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한다. 화가 나도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해서 가슴속에 누적되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분노의 원인이 되었던 용어리를 풀어주고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감정을 이야기로 표현하게 한다.

연구자는 1단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들을 위한 시도로 자기 분석을 위한 질문을 통해 치료적 개입을 하였다. 상담 과정에 있어서 현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내담자의 과거를 살피게 된다. 질문은 개방적인 질문, 느낌 중심의 질문으로 구성한다. 닐 앤더슨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사역으로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극히 개인적으로 함으로써 현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 질문은 자아상에 관한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 세 번째 질문은 슬프고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sup>1)</sup> 그리고 그때의 느낌은 어떠했는지이다. 이 질문을 통해서 과거 사건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과 충족되지 않은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질문은 아버지에 대한 질문으로 “아버지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로 구성했다. 즉 삶의 사건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1) 행복했던 일에 대한 질문은 부정적 사고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직면하도록 도움이 되고, 슬픈 일에 대한 질문은 억압된 감정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베너의 전략적 목회상담의 ‘첫 단계에서 핵심적 문제와 개인경험의 탐색을 하라는 원칙에 이론적 근거를 둔다. 다섯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장병들의 짧막한 내막(brief historical perspective)을 알 수 있는 진단의 시간이 된다. 한편 전입 신병들이 대기하는 2박3일의 기간 동안에 2 단계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를 통해 더 구체적인 치유와 돌봄을 위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 (2) 찬양

예배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의 분위기를 창조하며, 사람의 내적 생활을 향상시키고, 예배의 경험으로 회중을 통일시켜 회중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음악은 사람의 확신과 그의 감정 및 태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열린 예배의 요소에서 음악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감정을 털어 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목회자가 그들과의 공통 언어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군대교회 특성상 최상의 음악을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적 자존감을 심어주는 찬양을 신병들과 함께 부르면서 성령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 (3) 접촉

접촉은 강력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다. 버지니아 사티어(Virginia Satir)는 생존하려면 4번,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8번, 성장하려면 하루에 12번 포옹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들이 아버

지에게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표현한 후에 군목은 한 사람씩 안아주면서 신체적, 감정적 접촉을 한다. 껴안아주고, 악수하고, 조그만 선물을 주고, 또한 웃을 수 있는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 역시 어떤 이름표 없는 화해 의식이 된다.

특히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성인아이들은 스킨십을 해본 경험이 부족함으로 자주 포옹해주면서 친밀함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안아주면서 장병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함으로 수용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4) 치유적 기도

내면치유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악의 파괴적 세력을 대적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은 흔히 기도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며,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도 한다. 치유자는 단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장병들의 내적인 욕구와 현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한다. 성령은 상처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하시며 위로를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일깨워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 (5) 설교

예배의 목적과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절정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 바로 설교이다.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단순히 불신자나 초신자의 삶을 자극하고 독려하여 믿음을

수용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단순히 불신자를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므로 위로회나 환영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강력한 복음증거가 없다면 열린 예배는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열린 예배는 단지 좋은 느낌, 좋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시 말해 받을 가는 것은 씨앗을 파종하기 위함이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열린 예배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데이빗 베너는 전략적 목회상담에서 목회 상담자는 활동적이면서 동시에 지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설교는 제한된 돌봄의 현장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지시적인 입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목회 돌봄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설교의 증점은 성경적 인간관(biblical anthropology),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 20대 청년들의 정서적 욕구인 친밀감, 자신의 정체성, 성취, 아버지, 두려움 등의 주제로 접근하면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피드백

열린 예배가 마치면 2년 동안의 군 생활 동안 여러분 곁에 있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설명하고, 군목은 도울 수 있는 위치가 있음을 설명한 후<sup>2)</sup>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나누어준 메모지에 자신을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과 예배를 통해

2) 군목은 자신을 언제든지 다가가갈 수 있는 친구로 지치고 힘들 때 찾아와 설 수 있는 쉽터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으로 설명한다.

깨달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것은 장병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속성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돌보는 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장병들에게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7) 지지해주는 공동체

우리 자신이 겪은 학대와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를 용납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거부하지 않은 그룹 안에서 우리 자신의 경험들을 말하는 것이다. 휘트필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안전하고 지지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데이빗 시멘스는 ‘구원하고 용납하는 회중’이라고 표현한다. 기억의 치유를 위해서는 예수님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지붕까지 뜯어 낸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병자를 돌보아 주었던 것과 같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은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매주일 장병들의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에게 군목은 장병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교회 공동체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 속에서 용납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품어주는 분위기가 요구된다.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 (8) 편안한 분위기

열린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군목

안에 나타나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과 기술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잘 어울리질 때 강력한 치유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 상담 초기 과정 중 첫 단계에서 내담자의 저항을 줄이고 내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에 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장병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전입을 온 장병들은 긴장되고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의 긴장을 풀고 안정된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편안한 대화로 시작해야 한다. 군목은 매우 온화한 태도로 장병들을 대하여야 하며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 분위기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인도자는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영성 훈련이 요구된다.

#### 나. 심리 검사

트와트 주니어는 위기 청소년의 심리 테스트도 치유 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심리 테스트는 유용한 인지적 데이터 및 성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위기 청소년이 겪어온 발달과정 진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심리 검사의 목적은 개인내, 개인간 비교를 통해서 개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검사는 심리적 장애의 해결을 위한 치료개입과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기초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심리 검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심리 검사는 장병들을 돕는 데 아주 유용한 치료 자료가 된다. 현재 군에서는 최초 병사들이 훈련받는 논산훈련소와 각군 보충

대를 통해 입대하면 MMPI를 한국형 육군의 실정에 맞도록 표준화된 간편형 심리 검사인 KMPI<sup>3)</sup>(한국형 육군 인정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군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미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대 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보충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군에서는 육군 종합행정학교 상담학과에서 매년 초임군중장교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 C.B.T(Computer Based Training) 활용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야전에서 관심사병 파악 및 신상관리를 위한 보조기구로 활용하고 있다. 군목은 인간을 돕는 자로 정신과의사처럼 정확하지 못하여도 학문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장병들의 심리적이고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파악하여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 교류 분석(Ego gram/O.K gram)

교류 분석은 인간관계 교류를 분석하는 것으로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며 기법으로 미국의 정신의학자 에릭 번(Eric Burn, 1910-1970) 박사에 의해 개발된 임상심리학에 기초를 둔 인간 행동에 관한 분석 체계 또는 이론 체계이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체계적 심리치료법으로서 성격 이론, 의사소통 이론, 아동발달 이론, 병리학 이론

3) KMPI는 1965년 정범모 교수 등이 미국식 550문항을 383문항으로 단순축약시켜 개조시킨 것인데, 여러 가지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검사 방법이었다. 김종술, 「다면적 인정검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p. 224.

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 관심사병 파악 및 소부대 단위 팀빌딩을 위한 검사도구로 활발하게 사용 중에 있다.

## (2) 기질 및 자존감

자존감 및 기질 검사 설문지는 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설문지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자라온 환경이 이 수치를 결정해주기 때문에 내재된 심리를 파악하는 도구가 된다. 기질에 따라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 (3) 우울증 검사

군에서는 김용국이 쓴 「X세대가 다시 쓰는 사랑의 기술 - 나 어때?」에서 인용하여 군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 (4) KHTP

KHTP(Kinetic House-Tree-Person) 그림 검사는 번스(Robert C. Burns)에 의해 개발된 투사법의 일종이다. 피검자로 하여금 한 장의 종이에 어떤 움직임이 들어있는 집-나무-사람 그림을 그리게 하여 피검자의 가정환경, 가정생활, 가족관계, 자기상, 자신의 마음상태, 자신의 현실상 및 이상상, 타인에 대한 인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피검자의 이상심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5) 문장완성 검사(MSCT)

문장완성 검사는 임상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장병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검사는 KHTP 그림검사와 병행하여 활용할 때 해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2. 2단계 프로그램의 실제(Approach)

### 가. 상담적 설교

목회는 영혼을 돌보는 일이며 그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선포라고 할 수 있다. 다니엘 바우만(J. Daniel Baumann)은 “현대 설교는 심리적으로 병든 신자들이 많아 어느 때보다도 치유적인 설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삶의 정황적 설교라 부르든, 목양적 설교나 상담적 설교라 부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영. 혼. 육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니엘 바우만, 1983). 설교를 통하여 장병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도움을 구하는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고민과 갈등과 위기와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게리 콜린스가 설교를 대중적 상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처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군대 상황에서 설교는 장병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 돌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보여줌으로써 장병들이 용기를 내어 자기를 드러내고 치유와 돌봄의 관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데이빗 시멘스, 1999). 특별히 설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해줄 때 즉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공감해줄 때 설교를 듣는 청중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지를 느끼게 되고 그와 함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도 서서히 녹아 내리기 시작한다. 불안과 공포에 시달

리는 사람도 설교자가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줄 때 서서히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면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정태기, 1999).

#### 나. 심방

목사는 심리 상담자나 또는 정신 요법자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목사는 직책상 거의 아무 때나 교인들을 심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 심방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간 방문의 영광을 성찰하고 잃은 양을 찾으며 죄를 구속하고 고통을 치료하는 한 방법이다(토마스 오덴, 1990).

군목은 심방을 통하여 장병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듣고, 장병들의 필요를 기억함으로써 목사가 관심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군 목회 심방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방문이 요구된다. 전입신병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심리 검사의 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병들과 마음의 편지를 통해서 개인적인 필요와 상처들을 목사에게 고백한 장병들을 자연스럽게 찾아가 개인적 돌봄을 보여 주어야 한다. 토마스 오덴은 전통적인 목회 심방은 신앙이 있고 성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와 현재로서의 발달을 점검하기 위한 현지 검증의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군 목회 심방을 통하여 단순한 장병들과의 위로의 만남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돌봄의 양육을 포함하는 목양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병영생활 동안 긴장하면서도 지루해하는 장병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장병들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등이 있는 소규모 부대를 방문하여 집단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sup>4)</sup> 심방의 형태로

는 방문 계획을 알리고 찾아가는 공식적인 심방과 자연스러운 방문인 비공식적인 심방이 있다. 공식적인 심방의 형태로는 환자 방문, 수감자 방문, 격오지 방문이 있고 비공식적인 방문으로는 내무실 방문이 있다.

#### 다. 공식적인 초청과 행사

장병들의 변화를 돕기 위하여 기독교 문화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장병들은 주일 예배시에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다시 군대 문화 속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장병들에게 기독교적 사고와 분위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방법으로 외부 찬양단을 통한 위문 공연, 영화나 연극을 통하여 복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대부분의 군 장병들은 복무 기간 동안 최소한 몇 번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군대는 군목에게 장병들의 사기 함양과 인격 성장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과 격려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접촉점은 선교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군목이 부대활동을 함께 하면서 목사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전 장병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군목과의 접촉이

4) 군목은 주 1-2회 격오지를 방문하여 장병들과 대화를 나눈다. 연구자는 전방 사역시(97년 1월 - 99년 6월) '사랑의 사절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순회 방문한 사례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군목과 동료상담자라고 할 수 있는 군종병, 의무병을 중심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집단 상담을 실시한 것이다. 특히 간이 계봉들을 준비하여 장병들의 계급장을 달아주고 좋은 비디오를 선정하여 시청하기도 하였고 운동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군가 및 건전가요 경연대회를 병행하였으며, 준비한 간식과 선물(민간교회 후원으로 수건, 메모지 등의 선물 세트,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나누었고, 야간 근무시에는 '사랑의 온차'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상담과 선교의 중요한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연구자가 실시한 프로그램은 부대와 장병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부대 안정과 사기 함양이라는 것에 표면적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장병들과 군목과의 친밀한 접촉의 기회가 되며 좋은 선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

연구자는 군중병과 창립기념 행사로 독후감 발표회, 영화감상<sup>5)</sup> 장애인 초청 나눔의 행사, 부대별 찬양대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안정된 부대 운영을 위해 지휘관부터 참모들까지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연휴 동안 불우한 장병들(이혼, 고아, 가정 불화, 빈곤 등)을 교회로 초청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였고<sup>6)</sup>, 기독 간부들과 가족들이 야간에 사랑의 온차<sup>7)</sup>를 들고 초소마다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군대는 각 종파별 절기행사를 공식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다. 군목은 이러한 절기 행사를 전 부대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장병들에게 필요한 위문품<sup>8)</sup>을 보내줌으로 군목

5) 장병들을 초청하여 감상한 영화는 ‘인생은 아름다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 ‘트루먼 쇼’, ‘파인딩 포레스터’, ‘그들만의 계절’, ‘사인’, ‘에이 마’, ‘군 월 현탕’, ‘뷰티풀 마인드’, ‘홀랜드 오퍼스’, ‘엔트윈 피서’ 등이 있다.

6) 연구자는 이 행사를 ‘전우사랑의 날’ 행사로 명명하여 진행하였다.

7) 사랑의 온차는 군선교의 공식적 창구인 ‘한국군선교연합회’의 후원으로 동절기 기간에 커피 등 음료를 특별히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1 년도에는 1,600 개 부대에 전달하였다.

8) 위문품으로는 외부교회의 후원으로 부활절에는 계란 사탕, 초콜릿이 들어 있는 컵에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글을 써서 2,000개를 모든 간부 및 병사들에게 개인별로 보급하였고, 성탄절에는 진지 및 내무실에 성탄 축하 케이크를 카드와 함께 보급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를 함께 보급함으로 장병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라. 교육 - 인격 지도

인격 지도의 주제는 ‘인간화’이다. 현재 군의 정신전력 강화와 지도적 임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정훈 업무가 ‘바람직한 군인상’ 정립에 초점을 맞춘다면, 군중 업무는 바람직한 인간상 정립에 그 기본 임무가 있다고 하겠다. 고용수는 “군대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억압을 당하고, 고독, 소외 등 현대 사회 속의 실존하는 인간 자아의 모습을 수식하는 용어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경험되는 곳”이라고 표현한다. 군 목회는 이러한 특수 사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비인간적인 요소들과 군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들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인격적 사고와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올바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군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그 목적상 기독교 교육이 접근하고 추구하는 목적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교육, 특히 인격 지도 교육은 기독교 교육과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반드시 있다. 이는 변화를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목회 돌봄의 목적과도 방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군대에서 요구하는 인격 지도의 목적은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세기의 가치체계를 수정, 보완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도덕심 함양을 통한 전인적 장병을 육성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선량한 민주시민으로 애국하는 장병을 육성”하는 것이다.

인격 지도는 군 목회 돌봄을 위한 중요한 선교적 자원이 된다. 인격 지도 교육의 내용이 최소한 장병들의 심성에 주체 내용이 부딪치고, 그것이 현재적 동기 유발로 인해 다시 행동화되도록 하는 교육이 된다면 불신장병들이 인격 지도 교육을 통해서 목

사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대력과 신뢰를 느낄 수 있게 되고 군목과의 가까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마. 돕는 자(상담자) 훈련

로버트 카커프(Robert Carkhuff)라는 심리학자가 “평신도 상담자들”(lay helpers)의 상담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주의 깊은 연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평신도 상담자의 환자들이 전문 상담자들의 환자들 못지않게 또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군대에서는 군목들보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료인 군중병들을 통해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더 훌륭히 감당할 수도 있다. 군목은 목사의 손길이 미치지 어려운 장병들을 돌보기 위해 장병들의 동료인 군중병들을 동료 상담자로 세우고 훈련해야 한다. 군에서는 병사들의 생활 환경을 같은 병사들만이 느끼게 되는 공통된 정서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병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군중병들은 훌륭한 평신도 상담자가 될 수 있다. 군목 자신도 숙련된 상담자로서 준비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평신도 상담자인 군중병들을 잘 훈련시켜 평신도 사역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여야 한다.<sup>9)</sup>

#### 바. 독서 치료(Bibliotherapy)

9) 연구자는 군중병들을 대상으로 연 2회 2박3일 동안 ‘동료 상담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매주 1회 신우회원을 대상으로 ‘성장클럽’을 진행하고 있다. 12주 교육을 한 후 수료한 병사들에게 다른 병사를 돌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또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 학교’를 진행하였다. 1박2일 동안 기수별로 10명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좋은 아버지와 같은 간부상’을 주제로 서로 공감해주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독서 치료는 정신분석 이론, 게슈탈트 이론, 사회학습 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독서 치료란 정서적 혹은 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 치료의 도구로 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독서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이영애는 현대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음악, 미술, 스포츠 등의 방법이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독서는 가장 오래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치료요법이라고 하였다.

독서 치료는 대상에 따라 치료적 효과, 예방적 효과, 자기발전과 자아성장을 돕는 발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책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책 읽기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며, 인생의 폭을 넓히는 영원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리치 반 켈트는 부모의 이혼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십대의 젊은이들에게 책은 자신들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수용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였다.

치유는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책을 읽고 동일시의 경험을 한 장병들에게 자신의 파괴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정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 파괴적인 감정은 “우리의 시스템에서 빠져나가” 더 이상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 편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편지를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장병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들 즉 분노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연구자는 20대의 초기성인기에 있는 장병들에게 자아발견을

위한 심리 에세이, 불신장병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치유 소설 믿는 장병들에게 내적 치유 서적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1회에서 5회에 걸쳐 장병들이 생활하는 내무실 및 소규모 격오지(진지)에 보급하였다. 첫 번째 책은 장병들이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는 일반 소설 「해피 버스데이」<sup>10)</sup> 두 번째 책은 「눈물 흘리는 아버지들」<sup>11)</sup> 세 번째 책은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왜 두려운가?」<sup>12)</sup> 네 번째 책은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sup>13)</sup> 다섯 번째 책은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sup>14)</sup>를 선정하였다.

- 10) 「해피버스데이」는 마이니치 신문에서 선정한 감동했거나 인상에 남는 책 1위, TV 아사히가 시청자가 골라 읽고 싶은 책 1위가 된 책이다. 열한 살 생일 날 엄마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아 목소리를 잃어버린 후 시골의 외갓집에 머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연과 생명의 신비함을 깨닫게 되면서 목소리를 되찾게 되고, 학교에 돌아온 따돌림당하는 친구를 돕는 내용으로 타종교 병사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치유 효과가 있는 책이다. 2000년 12월에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 소설이다.
- 11) 「눈물 흘리는 아버지들」은 서울 은누리교회에서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아버지들이 아버지와 아내,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간증문으로 구성된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목사에게 보내도록 유도하였다. 2000년 9월에 출판되었다.
- 12)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왜 두려운가?」는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인 양창순이 자아발견을 위해 쓴 심리 에세이이다. 1999년에 현대문학에서 출판되었다.
- 13)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는 데이비드 리버만이 현대인의 복잡한 심리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력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고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1999년 창작시대에서 출판되었다.
- 14)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는 CCC 내적 치유 사역자인 주서택, 김선화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 소개된 치유 사례를 중심으로 내적 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들을 소개한 책이다. 1997년 순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 3. 3단계 프로그램의 실제(Recovery) : 집단 상담을 통한 치유와 회복

#### 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요소

##### (1) 집단 구성원

군대는 공식적 집단, 명령 집단, 과업 집단, 비자발적인 강제적 집단이다. 그러나 집단 상담에 참가하는 대상자는 군목에게 자발적으로 치료 의지를 나타낸 병사들이고, 자발적인 편지를 보낸 병사들이다.<sup>15)</sup> 그러나 신병이 전입할 때 실시했던 심리 검사 결과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하여 상처 입은 증상이 심한 병사들을 지휘관들과 상의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구성원이 선정되어 활동이 시작되면 새 구성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집단의 성격을 가진다. 인원은 10-12명의 인원수로 제한한다. 정동섭은 지원그룹은 비슷한 특성을 지니는 사람들이 참여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동질성의 지원그룹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한다. 이런 면에서 군대집단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가진 병사

엄예선은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를 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은 정상인들의 자녀들보다 음주 문제, 법

- 15) 연구자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60통의 편지를 장병들에게 받았다. 연구자는 2년 동안 5회에 걸쳐 55명의 장병들이 집단 상담(아버지 학교)에 참여하였는데 편지를 보낸 병사 중 군목이 추천한 병사 35명, 심리검사를 통해 추천한 병사가 8명, 지휘관이 추천한 병사가 12명이었다.

적인 문제 행동, 학교 문제, 정서적인 행동, 낮은 자신감,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등의 문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술 마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계속적인 요구와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모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자녀들은 경험이나 사고 구조의 일관성이 없으며 폭력과 강간의 가능성이 높고,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매우 혼돈된 상황 속에서 빈번하게 부모와 자신이 역할 혼동을 경험하며 자라나게 된다.

집단상담에 참여한 장병의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 및 폭력적인 부모를 둔 병사들이었는데 5회에 걸쳐 참여한 55명 중 30명이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자녀들이었다.

## ② 이혼 부부의 자녀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한해 우리 나라에서는 하루 2.37쌍의 부부가 새로 맺어지는 동안 한 쌍의 부부가 헤어진다. 이는 인구 1,000명당 2.8쌍 꼴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회원국 중 3위에 해당하는 이혼율이라고 발표했다. 2001년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미혼모에 의한 출산, 빈곤과 학대 등의 이유로 ‘버림받은 아이’가 사상 최대인 1만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한 장병들은 어느 정도 자립심과 정서적 고통을 잘 극복한 단계에 있는 성장적 단계에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기를 지난 장병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압된 감정의 증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친구들의 조롱이나 거부의 위협을 감수하기 보다는 고민과 외로움의 고통을 당

하기로 선택한다. 아버지학교에 참여자 중 10명이 이혼 부모의 자녀들이었다.

## ③ 완벽주의 성격의 부모를 가진 자녀

전입신병이 들어올 때 낮은 자존감, 두려움,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장병들은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해 살펴보면 강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부모 아래서 성장한 장병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녀들은 종종 완벽주의와 같은 성향을 부모에게 물려받아 새로운 차원의 완벽주의로 발전시킨다(강경호, 2002). 특히 목회자, 교육자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된다.

## (2) 일정

집단구성원이 함께 먹고 자는 완전합숙제로 실시한다. 기간은 3일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시간적 집중성 그 자체가 집단이나 개인 발달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 나. 프로그램 세부 순서

### (1) 도입 단계

대체로 집단이 생성된 초기 과정에는 구성원간에 긴장, 불안, 초조, 분노, 욕구 불만 등의 감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지도자는 집단상담의 내용, 즉 시간의 안내와 통제, 장소, 발표의 방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친절하고 명확하게 지침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집단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이 집단에서 회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자연스러

은 집단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1회 오리엔테이션

(1) 활동 목표: 참여자 소개와 예기불안을 취급함으로 심리적 안정감

#### (2) 활동

1) 인도자가 집단상담 과정과 대화에 대한 몇 가지의 규칙<sup>16)</sup>을 이야기한다.

2)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집단상담에 참가자로 선정되었을 때의 느낌과 현재 기분을 이야기한다.

(3) 소요 시간: 60분

#### (4) 효과

참가자들이 처음 만나는 상대방에 대해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는 시간이다. 진행자도 부담스러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진행해 나가자고 독려하는 시간이다.

### 2회: 나를 소개합니다.<sup>17)</sup>

(1) 활동 목표: 아이스 브레이킹<sup>18)</sup>과 정서적 친밀감을 촉진

16) 개인적인 만남은 피하도록 한다. 대화 시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기 의견이 달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 마음이 불편할 때는 말하지 않을 수 있다. 느낌 중심의 대화를 한다.

17) 이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에서 박남숙, 정승진이 ‘동료상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에 소개된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18) 직역하면 ‘얼음깨기’라는 뜻의 영어 단어이다. 이는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얼음에 비유하여 그러한 서먹한 관계를 깨고 좀 더 원활히 만든다는 뜻이다.

#### (2) 활동

1)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돌씩 짝을 짓는다

2)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20분 동안 대화를 나누게 한다.<sup>19)</sup>

3) 짝을 지은 사람과 함께 앉도록 해서 등글게 앉는다

4) 두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짝을 1인칭 화법으로 소개한다. “나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입니다.”

5) 대화를 통해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 깨달은 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되 가능하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발표하도록 한다. 단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여 서로 지루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소요 시간: 90분

#### (4) 효과

일반적으로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정보를 개발해야 한다.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면 대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피상적인 내용만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단들이 이야기함으로써 집단에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감정적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내가 짝의 입장이 되어 ‘나는.....입니다’라는 일인칭으로 소개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효과가 있다.

#### (2) 준비 단계

준비 단계는 집단원들이 집단 장면과 다른 집단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집단의

19) 대화 내용으로는 집단상담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처음 볼 때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내가 불리워지고 싶은 별칭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할 수 있으려면.....등으로 할 수 있다.

위기를 맞는 단계이다. 위기의 형태는 저항과 갈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지도자는 자신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면서 참여자들의 저항과 갈등의 반응을 적절하게 수용해주고 지도자와 구성원 사이에 또한 구성원 사이에 친밀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변화기에 다루어지는 주요주제는 ‘자아 정체성’이다.

### 3회 : 인생그래프<sup>20)</sup>

(1) 활동 목표 :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생활에 대한 통찰을 하게 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공동체 분위기 유도

#### (2) 활동

1) B3 용지의 긴면을 가로로 하여 2번 접는다. 윗쪽으로 점수를 10, 20, 30점은 좋았던 기억을 아랫쪽으로 -10, -20, -30의 점수는 나쁜 기억을 기록하는 숫자임을 알게 한다.

2) 최하단 빈칸에 가로를 현재의 나이만큼 등분하여 적는다.

3)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인생그래프라고 하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을 나이에 따라서 해당 점수에 점을 찍도록 한다.

4) 기록을 마쳤으면 인생그래프를 한 사람씩 발표한다.

5) 발표 후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 후임병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공감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발표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6) 발표 후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화분을 건네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를 추천합니다’ 하고 다음 발표자를 추천한다.

20) Deison은 ‘인생의 지도(Life Maps)’라고 표현한다. 전요섭이 제작한 인생 그래프를 참고 응용한 것이다.

(3) 소요 시간 : 4시간(240분) : 12명을 기준으로 한명 당 20분씩

#### (4) 효과

집단이 유사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내담자들간에 강한 응집력을 갖게 되고 자신의 과거, 현재 생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된다. 구성원 개개인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수용이 증가되는 시간이다. 사람은 자신이 이룬 일이 알려지게 함으로 자아가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을 돌아보게 함으로 성취한 것에 대하여 격려할 수 있고 내적 치유를 위한 감정적 정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 4회 : 목록과 외식

(1) 활동 목표 : 친밀감 촉진

(2) 활동 : 목록 외식

(3) 소요 시간 : 120분

(4) 효과 : 긴장이 해소되고 친밀감이 강화된다.

### 5회 : 자화상 그리기

(1) 활동 목표 :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집단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자신을 이해, 수용하고, 주장을 강화하며 성격적 인간관을 소개

(2) 활동 : 장소를 상담실에서 교회로 바꾸어 강대상 앞에서 발표한다.

1) A4 용지를 6등분으로 접어 왼쪽 3칸에 현재의 자아상, 오른쪽 3칸에 미래의 자아상을 그림, 암호, 상징적 숫자 등으로 기록한다.

- 2) 기록한 후에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한다.
- 3) 발표 후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공감과 격려하면서 피드백을 한다.
- 4) 지도자는 왜곡된 자아 형성의 원인이 되었던 요소들을 직면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기도와 격려, 안아주기를 한다.
- 5) 모든 참여자가 발표한 후 지도자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설교를 한다.

6) 설교 후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다.

(3) 소요 시간: 120분

(4) 효과

내적인 상처와 개인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따뜻함과 순수한 관심에 의해 내적인 격려를 받을 수 있다. 우경아는 자기 주장성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들은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행동 목록을 증가시켜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고하였다(2001).

(3) 작업 단계

작업 단계는 집단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로 중심 주제에 대해 가장 깊고 풍부하게 다루는 시기이다. 작업 단계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 주제는 ‘아버지’이다.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들의 상처 입은 증상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셀은 성인아이의 치유에 요구되는 회복의 측면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밝힌다(1997).

첫째, 자신의 배경을 검토하는 가운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한다. 둘째, 부모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원한, 죄책감 같은 문제를 다룬다. 셋째, 아동기 경험에서 파생된 수치심, 우울, 죄책감,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충동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중독과 같은 행동적 문제를 다룬다. 넷째, 과거의 상실을 애통해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다. 다섯째, 영적인 자원에 의지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 자신들이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임을 인정하게 하고(자기 수용), 양육 과정에서 받았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지 재구성을 돕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위해 기도로 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다. 도움을 위한 영적 자원으로 ‘내적 치유’가 있다.

6회: 영화감상

(1) 활동 목표: 인식의 변화

(2) 활동: 영화시청 후 피드백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가?’를 발표한다. 지도자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면서 억압된 기억이 노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3) 소요 시간: 120분

(4) 효과

아버지도 연약하고 상처 입은 존재임을 인식할 뿐 아니라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7회 : 성격 검사

(1) 활동 목표 : 자신의 성격 기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기 인식

#### (2) 활동

교류 분석(Egogram/O.Kgram)에 의한 자아상태를 분석, 자존감 및 기질 검사, 우울증 검사, K-H-T-P(동적 잡-나무 사람 그림 검사),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해 자라는 가정 환경과 성격 형성의 원인을 상담자가 평가해주고 참여자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피드백을 한다.

(3) 소요 시간 : 120분

(4) 효과 : 자기 인식과 수용

### 8회 : 역할극

(1) 활동 목표 : 카타르시스(감정적 정화 작용)

#### (2) 활동

1) 어릴 적에 아버지와의 갈등 순간을 묘사하여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짝을 지어서 연기한다.<sup>21)</sup>

2) 연기를 마친 후에 리더와 집단원들이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3) 지도자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아버지가 나와 같은 연약함과 죄성을 지닌 취약한 사람임을 알게 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다.

5) 발표 후에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

21) 어릴 적 가장 상처 받았던 순간 부탁하고 싶은 말,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기쁘고 슬픈 순간 등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

도록 한다.

(3) 소요 시간 : 90분

(4) 효과 : 감정적 정화와 인식의 재구성이 일어난다.

### 9회 : 회상의 기도

#### (1) 활동 목표

참여자들에게 과거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상황이나 어려웠던 대인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하여 그 상황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능력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 (2) 활동

1) 시작 전에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2) 진행자는 어린 시절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참여자들이 시간별로 심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건을 심상으로 떠올리고, 그 의미와 모습을 체험케 하는 정화 심상 체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된 행동이나 대상을 떠올리는 공격성 심상 떠올리기와 자신에게 가장 편하게 느껴졌던 따뜻한 경험들을 떠올리는 것을 병행하면서 심상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다.

3) 참여자들에게 어린 시절 일어난 사건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고백하도록 돕는다. 특히 참여자들이 어릴적 권위자들에 의해 형성된 그릇된 신념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돕는다.

4)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 - 성령께서 우리를 과거에 실제로 경험했던 그때로 데리고 가서 우리와 함께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성령의 도움으로 마치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에 실제로 있어서 그 당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수 있도록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가운데 자신과 함께하셨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인해 형성된 억압된 상처의 끈을 끊어버리고 용서를 선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치유되지 못한 고통스런 기억이 참된 치유자 되신 예수님에 의해 만져짐으로써 치유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3) 소요 시간: 30분

(4) 효과

자신의 행동과 성격의 부정적 영향이 되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치유에 대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기억에 대해 선택적 기억이 되어 왜곡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10회: 고백과 회복을 위한 예배

(1) 활동 목표: 치유와 회복

(2) 활동

1) 예배를 시작하면서 자존감 회복과 하나 됨의 의미가 있는 찬양을 선곡하여 부른다(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 등).

2) 집단상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자원자 중에서 간증한다.

3) 간증을 듣고 참여한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피드백을 하도록 한다.

4) 지도자는 발표한 장병을 위해 공동체 앞에서 기도해 주고 안아 주면서 격려한다.

(3) 소요 시간: 90분

(4) 효과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와 기도 시간이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와 치유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로운 믿음이 싹트고 새로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한편으로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게 될 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

(4) 종결 단계

종결 단계는 집단 활동의 전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마무리한다는 것은 마치 환자를 수술할 때 신체의 일부를 열어놓고 내부를 치료한 뒤 닫는 것과 같다. 종결 단계에서는 집단 활동이 끝나는 것과 관련된 느낌들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에 따라 부정적 감정 즉 불안, 이별에 대한 두려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아쉬움의 감정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도자는 분위기를 희망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집단상담 과정 중에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지도자는 집단을 떠나 휴가를 출발하는 참여자들에게 ‘부모님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시키고 다시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11회: 사랑의 편지 쓰기

(1) 활동 목표: 결속을 다짐

(2) 활동

1) 참여자들에게 A4 한 장을 배부하고 그 위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그것을 오른쪽 사람에게 돌린다. 인도자는 이 순서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격려의 말을 요약하여 내담자를 격려한다.

2) 기록이 끝나면 자신에게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자신의 설명이 필요한 표현이 무엇인지 발표하도록 한다.

(3) 소요 시간: 60분

(4) 효과: 친밀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

#### 12회: 지휘관과의 대화

(1) 활동 목표: 참여자들에게 관심과 자긍심 고취

(2) 활동

1) 다과를 준비하여 지휘관과 담화를 나눈다.

2) 기념품을 증정한다(아버지학교 기념 수건, 장미꽃, 휴가증).

(3) 소요 시간: 60분

(4) 효과

군대는 지휘관에 의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휘관에 의한 공식적인 격려는 병사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된다. 군목의 활동은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을 때 더욱 힘있게 진행될 수 있다.

#### 4. 4단계 프로그램의 실제(Encouragement)

#### 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지속적 돌봄

현대 사회는 자동차와 컴퓨터, TV, 전화, 서신의 발달로 인해 훨씬 넓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상담 방법에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담 심방은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최근 군대 안에도 전자 LAN(근거리 통신망)이 설치되어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목의 격려 메시지들은 종교게시판에 전달될 수 있다.

한편 장병들은 군 생활 중 휴가, 외박, 외출 등으로 여가를 가질 수 있다. 대부분 3단계에 참여한 장병들과 ‘공동체(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접촉을 가질 수 있다. 3단계 프로그램이 끝난 후 생활 모습은 어떠했는지, 휴가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의 찜찜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sup>22)</sup>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나.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

우리는 자신을 알리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불안해 한다. 자신의 사역과 평판과 성취를 존재가치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섬김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함께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좋은 것이다.

한국 사회는 최첨단의 정보화 사회에 돌입하였다. 우리가 원

22) 연구자는 카페 ‘아버지 학교(daum - goddadschool)’를 운영하고 있다.

하든 원하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미디어와 그것이 쏟아내고 있는 무수한 정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군대는 제한된 정보를 얻게 된다. 군대에서 장병들은 ‘국방일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된다. 최근 국방일보는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국방일보에는 ‘군중단상’이란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주 1회 군중 장교들(목사, 신부, 법사)에 의해서 집필되고 있는데 이때 돌봄 목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글들을 소개할 수 있다.<sup>23)</sup>

#### 다. 신우회(공동체)를 통한 지속적인 돌봄

장병들은 고통스러운 억압된 기억으로부터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생활 속에서 자신과 관련된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된다. 치유를 경험하였지만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여 격려해주는 후원 그룹 없이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 교제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킴으로 그들의 기억 치유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교회는 서로서로 의미있고 치유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추구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집단상담에 참여하여 치유를 경험한

23) 연구자는 2002년 4월 2일자에 ‘안아주기’와 7월 16일자 ‘기쁨의 눈물’의 제목의 글이 보도되었고, 2002년 5월 8일 어버이날 기획 특집 기사로 ‘사랑의 아버지 학교’가 보도되었다. 한편 KBS 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2002년 5월 21일)에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군대 안에 치유목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다. 또한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CBS 장병의 시간’은 군목의 설교방송 시간이 있어서 연구자는 4회 방송한 바 있다.

장병들은 동료 상담자들인 군중병 및 신우회원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 IV. 결론

연구자는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들의 치유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군대 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목회 돌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은 군대의 문화 속에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목회 돌봄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장병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상담적, 치유적, 선교적 접근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목회 돌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라고 하는 제한되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군목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군중 활동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장병들과 접촉하여 영혼 돌봄의 관계에 이를 수 있는 1단계 프로그램(Contact),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장병들을 찾아가 그들을 발견하는 2단계 프로그램(Approach and Activity), 찾아가 만난 상처 입은 장병들을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3단계 프로그램(Recovery), 그들의 바른 변화와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4단계 프로그램(Encouragement)인 CARE 4단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는 군대 목회 현장이 인생의 중요한 발달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변화를 돕는 현장임과 동시에 특히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들을 치유하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치유목회의 현장임을 소개하면서 군 목회에서 돌봄 목회의

필요성과 치유 목회의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군 목회 현장이 단순히 씨를 뿌리는 선교 현장 이해를 넘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돌보고 가르치는 중요한 목양지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군 목회는 26개월의 짧은 목회 돌봄 기간이기 때문에 치유와 돌봄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26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모두 이루셨다. 군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장병들을 바라본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군목들은 지속적인 신학적, 신앙적, 상담심리학적, 인격(성품) 훈련이 요구되며,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는 좋은 대상,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 나아가 한 영혼을 끝까지 돌보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고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에 여기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돌볼 때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의 열매처럼 군 선교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강경호, 「역기능 가정의 성인아이와 상담」, 서울: 한사랑가족상담연구소, 2002.

\_\_\_\_\_, 「위기와 상담」, 서울: 한사랑가족상담연구소, 2000.

고병인, 「역기능 교회와 역기능 가정을 위한 목회와 상담」, 서울: 도서출판 예인, 1996.

김상식, 「2001년 군종장교 보수교육 자료 KHTP 그림검사와 이상심리」, 국방부: 육군본부, 2001.

김현희 외 11인, 「독서치료의 실제」, 서울: 학지사, 2001.

박영숙, 「심리평가의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1994.

심수명, 「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 서울: 서로사랑, 2001.

우재현, 「심성 개발을 위한 교류분석(TA) 프로그램」, 대구: 청암서원, 1988.

이영애, 「책읽기를 통한 치유」, 서울: 홍성사, 2000.

이형득 외 4인, 「집단상담」, 서울: 중앙정성출판사, 2002.

전요섭, 「기독교 상담의 실제」, 서울: 한국복음문서간행회, 2001.

정동섭,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서울: 요단출판사, 1999.

정소영, 「상담과 기독교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2. 번역서

가필드, 「단기심리치료」, 권석만 외 3인 역, 서울: 학지사, 2002.

게리 콜린스, 「카운셀링가이드」, 정석환 역, 서울: 기독교지혜사, 1989.

\_\_\_\_\_, 「훌륭한 상담자」,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데이비드 스톱, 제임스 매스텔러,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정성준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1.

데이비드 시멘스, 「상한 감정과 억압된 기억의 치유」, 송현복,

송복진 역.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1999.

데이비드 G. 베너, 「전략적 목회 상담학」, 전요섭 역. 서울: 은혜출판사, 1995.

\_\_\_\_\_, 「정신 치료와 영적 탐구」, 이만홍, 강현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0.

래리 크랩, 댄 엘런더, 「격려상담」, 오현미, 이용복 역. 서울: 나침반, 1986.

\_\_\_\_\_, 「상담과 치유공동체」,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로버트 번스, 「동적 집-나무-사람-그림검사」, 김상식 역. 서울: 하나의학사, 1998.

르왓 주니어, 「사춘기 위기 상담과 보살핌」, 신민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리치 반 펠트, 「사춘기 청소년들의 위기상담」, 오성춘, 오규훈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브루스 리치필드, 넬리 리치필드,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제1권, 정동섭, 정성준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1.

\_\_\_\_\_,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제2권, 정동섭, 정성준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존 패튼, 「목회적 돌봄과 상황」, 서울: 은성, 2000.

찰스 셀, 「가정 사역」, 서울: 두란노, 1997.

\_\_\_\_\_,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정동섭, 최민희 역. 서울: 두란노, 1999.

카르디아, 「이야기로 푸는 열린예배」, 서울: 기민사, 2001.

토머스 오덴, 「목회신학」, 오성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0.

팀 슬레저, 「가족 치유 마음 치유」, 정동섭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6.

폴 투르니에, 「강자와 약자」, 정동섭 역. 서울: IVP, 2000.

Irvin D. Yalom, 「최신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혜림, 장성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1993.

### 3. 학위논문

고재천, “군중병을 위한 평신도 상담 훈련 프로그램 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2002.

김래현, “군목회 상담에서의 문제 유형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Lael College & Graduate School, 1996.

우경아, “역기능 가정의 성인아이를 위한 전인치유 모델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2001.

이석우,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하나님의 선교 전략 연구”. 미간행 신학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임선희, “PC통신 상담의 효율성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6.

조충환, “예배사역을 통한 내적 치유”.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침례신학대학원, 1996.

황동현, “자살 우려자에 대한 위기 상담”.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평택대학교 대학원, 1999.

### 4. 기타

김한성, “상담설교의 목회적 실용성에 관한 연구”. 「가정과 상

답」, 2002년 3월호, pp. 48-53.

고병인, “동반 의존자 예방과 치유를 위한 사역”. 「가정과 상담」, 2002년 3월호, pp. 55-60

고용수, “군선교 교육론”. 「군선교신학」, 1990년, pp. 222-244.

나학진, “상대주의를 넘어선 갈등 해소 모색”. 「목회와 신학」, 1993년 8월호, pp. 61-70.

박성규, “우울증 장병 선도 방안”. 「신앙지도」 제28집, pp. 16-33.

\_\_\_\_\_. “종파 화합, 그 선교적 접근”. 「신앙지도」 제27집, 1998년, pp. 95-118.

배동훈, “신상 파악 상담기법 개발 보고”. 「신앙지도」 제28집, 1999년, pp. 34-87.

안경승,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의 통합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교회 복음주의 목회 상담학의 과제”.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정기논문 발표회, 2002.

우기식, “인격지도교육을 통한 기독교 군인교육”. 「교육목회」, 2000년 봄호, pp. 180-184.

정태기, “치유목회의 중요성과 설교를 통한 치유”. 「목회와 신학」, 1999년 7월호, pp. 50-57.

국방부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 백과」 국방부 군인공제회 제1사업부, 2000.

## 부록

(열린예배 순서)

진행순서	진행방법	소요시간
Opening	환영의 인사	5분
찬양	당신을 향한 노래 등	5분
이야기마당	인도자가 다섯 가지의 발표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참가자가 모두 앞에 나와 5가지 내용을 발표한다.	20분
안아주기	선물을 증정하면서 한 사람씩 안아주면서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컷속말로 하게 한다.	5분
설교	자존감 회복	30분
선물증정	격려와 위로의 선물로 수건, 메모지, 볼펜, 초코파이, 명함인 담긴 선물을 개인적으로 증정한다.	5분
피드백	마음의 편지쓰기 (애로 및 건의사항, 현재 심리상태 표현)	10분
교제	간식	10분

(전입신병 상담 결과 보고 양식)

소속	성명	이코그램					오케이그램				자 존 감	기 질	우 울 증
5	박00	CP	NP	A	FC	AC	타인 부정	타인 긍정	자기 긍정	자기 부정			
		34	46	32	36	44	28	42	37	27	14	S7P3	24
마음의 편지		<p>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주욱 쓰려고 했지만 현재 제게 닥친 엄청난 갈등 속에 매일 허덕이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씁니다. 고민이 있노라고…….</p> <p>군에 입대를 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좀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과 떨어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 속에 적응한다는 것은 제게 꽤 힘든 일이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거의 매일 들었고 때론 제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여 속으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p> <p>왜 이렇게 제가 나약할까? 어떻게 살아 왔기에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일까? 많이 반성하며 제 자신을 꾸짖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제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p>											
군종목사 의견		<p>자존감이 매우 낮고 열등감이 심함. 우울증세가 있음.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 요망</p>											

(동료상담자 훈련 일정표)

	월 일	월 일	월 일
06:00~07:00	환영합니다	새벽기도(설교)	새벽기도(설교)
07:00~08:00		영혼의 식탁	
08:00~09:00		성격검사	그룹만남(3)
09:00~10:00			간증문
10:00~11:00		이상성격(심리) (강사)	고백치유의 시간
11:00~12:00			파송 예배
12:00~13:00	만남이 있는 식탁		
13:00~14:00	그룹만남(1)	영화묵상(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주간에서 승리하십시오
14:00~15:00	나는 누구인가 (강의)		
15:00~16:00			
16:00~17:00	인지치료 (강사)		
17:00~18:00			
18:00~19:00	사침이 있는 식탁		
19:00~20:00	고백과 죄책감의 시간 (강의)	내적치유 (강사)	
20:00~21:00			
21:00~22:00	기도회	기도회(안아주기)	
22:00~23:00			
23:00~24:00			

(아버지학교 일정표)

	월 일	월 일	월 일
06:00~07:00		세면	
07:00~08:00		조식	
08:00~09:00		비디오시청(6) 인생은 아름다워	사랑의 편지쓰기 (11)
09:00~10:00	오리엔테이션(1)		
10:00~11:00	나를 소개합니다(2)	성격 검사(7)	지휘관과의 대화 (12)
11:00~12:00			
12:00~13:00	중식		
13:00~14:00	인생그래프(3)	역할극(8)	
14:00~15:00		자유시간	
15:00~16:00		시간 여행(9)	
16:00~17:00	목욕과 외식(4)	휴식	
17:00~18:00		석식	
18:00~19:00		고백과 회복을 위한 예배(10)	
19:00~20:00			
20:00~21:00	자화상 그리기(5)		
21:00~22:00			
22:00~23:00			
23:00~24:00			



## 군인교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교회 발전

(New Paradigm of Military Church  
Development which 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정두영 목사

### 1. 서론

#### A. 문제 제기

과거에는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라는 용어가 ‘선교’라는 용어를 대체할 정도로 붐을 이루었다. 교회성장 이론은 결과를 중시하므로 추수 단을 들고 이야기하자는 “추수의 신학”을 강조했다.

- 약력: • 고신대학교 신학박사 수료  
• 프라미스 키퍼스 한국 총무

고 결과에 대해서 수적으로 측정하고자 했으므로 “한정된 시간, 돈, 자원(인적 자원)은 교회가 결과에 기초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sup>1)</sup>고 말했다. “교회의 수적인 성장은 하나님과 함께 우선되며 (회심에 대한) 결단보다는 새로운 제자 삼함에 초점을 맞춘다”<sup>2)</sup>는 전제에도 나타나듯이 교회성장 이론은 ‘교회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회의 수적인 성장 강조와 더불어 모든 족속 제자삼기(마 28:19)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두 코드는 상호 잘 융합되지 않고 있다. 모든 족속 제자삼기는 질적인 발전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봄을 이론 교회성장의 여파로 그 이론에 대한 비판은 있어 왔지만 다른 모델 체계는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그에게 영향을 받은 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그의 단점을 보완하는 모델들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이 셀 교회의 성장, 멘토링 교회의 성장, 건강한 교회의 성장, 자연적 교회성장(NCD)이다. 현재 이 신학모델들이 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 모델들이 최상의 모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발전시킬 대안은 없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B. 논문 용어의 개념

‘소그룹’이라는 용어보다는 “셀 그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소그룹은 단지 크기에 있어서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셀 그룹은 작은 그룹 안에서의 생명력, 네트워크의 의미를

용례: 필자는 성경의 장, 절을 표시함에 있어서 콜론(:) 앞에 오는 숫자는 ‘장을’, 콜론 뒤에 오는 숫자는 ‘절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2:’은 ‘2장을 의미하며, ‘28’은 ‘28절을 의미한다.

포함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역점을 두셨던 제자훈련도 단지 작은 그룹만을 의도하지 않으셨고 확산을 위한 훈련의 기본단위였음을 의도하고 계셨으므로 “셀 그룹(교회)”이라는 용어가 성경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본다.

“자연적 교회성장”이라는 용어는 “Natural Church Development”를 한국교회가 번역한 것인데, 교회성장 개념에서 교회발전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교회발전’이라는 용어를 ‘교회성장’이라는 용어로 대체시켜 버렸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필자는 본래 의미대로 ‘교회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제자훈련’이라는 용어를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답습해왔다. 그러나 제자훈련이라는 용어는 따르는 자(Follower)라는 개념이 강하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 설정으로 인해 정작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제생산의 목표를 의미로 내포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목자장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친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력을 가지고 목양하는 의미로서 ‘목자훈련’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본다.

3장에 나오는 “True Church”라는 용어는 폴러신학교의 벤 앵겐(Van Engen) 교수가 그의 박사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로 한글로는 “올바른 교회”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 C. 논문의 목적

1) 엘머 L. 타운즈 편, 「전도와 교회성장의 모든 것」, 홍용표, 최현서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p. 113.

2) Ibid.

군인교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국방부교회 같으면 누가 국방부장관이 되느냐와 관계없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예하부대 군인교회의 경우 지휘관이 누구인가에 따라 교회운영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답습 형태로 지휘관에 의존된 교회성장은 지양되어야 한다. 미군교회와 같이 군인교회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지휘관의 열심과 관심 여하에 따라 군인교회가 융성한 패턴, 즉 지휘관에 따라 합동세례식을 통해 세례자 수를 늘리는 식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성장 패턴인 질적 성장의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군인교회를 질적으로 성장시킬 모델은 무엇이며, 단순한 군인교회 성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군인교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모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회성장운동(Church Growth Movement)은 1960년대에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 박사가 처음으로 소개하여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1980년대에는 500여 권 이상의 교회성장 도서들이 출간되었고 이 당시 교회들은 교회성장 원리를 적용해서 교회성장을 도모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교회성장 신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신학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교회성장운동은 21세기 현재에도 비판이 제기되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고, 또한 교회성장 신학의 장점을 이어가는 면모도 병행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교회성장신학의 수(양)적인 성장 모델에 대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질적인 성장 모델이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교회성장 신학에 대한 평가<sup>3)</sup>와 더불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질적인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러면 현재 몸을 이루고 있는 질적인 교회성장 이론들로서, 셀 교회의 성장이론, 멘토링 교회의 성장이론, 건강한 교회의 성장이론, 자연적 교회발전 이론은 적합하며 문제가 없는가? 그것들의 발전된 이론적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야 할 필요를 가진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 근거한 교회발전 모델이다. 키가 큰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교회성장과 교회건강은 다분히 개교회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오늘날은 ‘교회성장’이라는 용어보다 ‘교회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 전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교회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확장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올바른 교회(True Church)”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워드

3) 앵겔(Engle)과 게리(Gary)가 편집한 *Evaluating the Church Growth Movement: 5 Views*에서 교회성장운동에 대한 교파, 신학적, 지리적 배경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5가지 대표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엘머 타운즈(Elmer Towns)는 효과적인 전도의 관점(Effective evangelism view)에서 교회성장운동이 효과적으로 문화에 대해 직면하고 있다고 보았다. 크레이크 반 겔더(Craig Van Gelder)는 우리들의 문화 가운데에서의 복음에 대한 관점(Gospel in our culture view)에서, 교회성장운동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신통치 않다고 보았다. 찰스 벤 앵겐(Charles Van Engen)은 중도파로서의 관점(Centrist view)에서, 교회성장운동이 통찰력 있게 문화적으로 접근하기는 했으나 신학적으로는 피상적이었다고 보았다. 가일린 벤 리넨(Gailyn Van Rhenan)은 개혁주의자로서의 관점(Reformist view)에서, 교회성장운동이 신학적인 부분의 반영, 문화적 분석, 역사적 관점, 그리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한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았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갱신의 관점(Renewal view)에서, 교회성장운동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스나이더(Howard Snyder)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교회의 본질에 우선하자는 것이고, 말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하자<sup>4)</sup>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머물고 있고, 교파의 파벌을 형성하고 있으며, 교회분열을 일삼고 대형교회화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 근거한 네트워킹 교회발전으로도 모되어야 한다.

한국교회 상황	⇒	대안
개교회주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 근거한 네트워킹 교회발전
교파 파벌주의		
교회분열		
대형교회화		

맥가브란의 수적인 교회성장 모델에 이은 질적인 교회성장 모델들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질적인 교회발전 모델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맥가브란	수적인 교회 성장	⇒	질적인 교회 성장	셀 교회의 성장	⇒	질적인 교회 발전	가정교회발전
				멘토링 교회의 성장			목장교회발전
				건강한(올바른) 교회성장			언약교회발전
				자연적 교회발전(NCD)			네트워킹 교회발전

4) 페트릭 존스턴은 말세가 늦어지는 이유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림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기거나 늦출 수 있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게을리한 우리의 책임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페트릭 존스턴,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큼니다」 이창규, 유병국 역 (서울: WEC 출판부, 2000), p. 100ff.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시대	주장자	내용	특성	장점	단점	대안
과거	맥가브란	교회성장학	수적인 교회성장	선교의 열정, 추수의 신학	수적인 강조	질적인 교회성장
현재	조용기외	셀 교회의 성장	질적인 교회성장	생명력, 성장, 네트워킹		가정교회발전
	하워드 핸드릭스, 로버트 클린턴	멘토링 교회의 성장		전수	1대 1 적용	목장교회발전 (목자훈련)
	릭 워렌 (새들백 교회) 벤 영겐	건강한(올바른) 교회성장		질적인 교회성장	교회건강의 개념	언약교회 발전
	랄프 네이버	자연적 교회발전(NCD)		원리	원리와 실천	네트워킹 교회발전
미래		가정교회발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질적인 교회발전	초대교회 원형회복		
		목장교회발전		목자훈련 적용		
		언약교회발전		올바른(진리) 교회의 발전		
		네트워킹 교회발전		이웃 사회에 대한 접근, 하나님의 나라 확장		

#### D. 연구방법 및 한계

군인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모델 개발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발전은 저절로 되는 경우는 없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질적인 교회성장 개념에서 보면, 성장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들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델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모델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5)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는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① 전통을 고수하므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한국교회 가운데서 영락교회는 전통적인 모델교회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목회자와 장로 동반퇴진”이라는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영락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목회자와 장로들 간의 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정적 목사를 추종하는 수구 보수 세력이 전통을 내세우며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노령화되어 정체되기 때문이다. 창신교회는 대형교회로서 전통적인 교회의 면모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비주류 부목사들을 중심으로 세계 교회에서 유례 없는 노조결성이라는 교회분쟁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전통적인 교회들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릭 워렌 목사도 “새들백이 개척 교회이고 또 내 자신이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실험해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부대껴야 할 전통이라는 것이 아직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에게도 오래된 교회들에게 없는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초창기에 우리는 실패해도 별로 잃을 것이 없었기에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들을 시도해 보았다”(릭 워렌, 『새들백교회이야기』 p. 38)라고 했다.

앞으로도 교회가 전통에 얽매어서 교회발전을 도모하지 못하면 정체 혹은 쇠퇴하게 된다. 이 말은 교회의 진리와 전통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새들백교회와 같이 진리를 현 상황에 맞게 심어주지 못하고 과거 방식에만 머무는 것을 말한다. 새로남교회는 대전의 핵심부에 300여억 원의 예산으로 교회를 신축했다. 8층은 문화공간 카페를 만들어 인근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했다. 최근에 전통적인 모 교회에서 1,000여 명의 교인들이 새로남교회로 이동했다고 한다. 왜 교인들이 움직이는가? 전통에 얽매어 있는 교회를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교리나 구태의연한 것들에 얽매어 있다. ③ 지도력의 문제이다.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④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의 갈등구조 때문에 직분자들이 교회성장의 거침돌이 되고 있다. ⑤ 평신도들과의 팀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잠재우고 있다. 단지 예배 참석자들로만 만들고 있다. ⑥ 목회자가 심방이나 잡다한 업무에 얽매어 있다. 교회 핵심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다. ⑦ 목회자가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비전과 열정을 갖지 못하고 단순히 교회가 생존(Survival)하는 데 허덕이고 있다. ⑧ 교회가 밖으로 향하는 확산모델을 지향하지 않고 교회 건물에 치중하는 것과 같은 내적으로 안주하는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군인교회들은 민간교회와는 다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군인교회가 발전하려면 간부들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영외에 교회를 지어서 군인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교인들이 출석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교회재정도 확보되어 교회사업을 넓혀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주로 병사들에게 관련이 되지만 보안의 이유를 들어서 군인교회를 영내에 짓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교회활동이 위축을 받게 되고 교회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군인교회의 한계성을 넘어서는 일반적인 군인교회의 발전 모델을 설정함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군인교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회발전 모델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질적인 성장 모델을 살펴보고 평가하면서, 필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교회발전 모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셀 교회성장(Cell Church Growth)에 대한 대안으로서 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발전(Development of the Church as the Covenantal Community), 멘토링 교회성장(Mentoring Church Growth)에 대한 대안으로서 목자훈련 교회발전(CHurch Development through the Shepherd Training), 자연적 교회성장(NCD)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교회발전(CHurch Development of Family Church), 건강한 교회성장(Healthy Church Growth)에 대한 대안으로서 네트워크 교회발전(Networking Church Development)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건강한 군인교회: 질적인 교회성장 모델에 대한 평가

군인은 건강하다. 군인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용어를 달리하지만 셀 교회, 멘토링 교회, 자연적 교회성장, 건강한 교회 모두는 건강한 교회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건강한 교회 개념은 일단 수적인 교회성장의 카테고리에서 탈피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교회발전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교회 성장에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고 있다. 수에 얽매이지 않고 질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셀 교회는 세포분열과 같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멘토링 교회는 멘토링 제생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연적 교회성장은 교회 성장 원리에 바로 서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개념은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 A. 셀 교회 성장(Cell Church Growth)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현대는 인구폭발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구촌 시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인간성이 결여되고 생명적 유기체가 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날 교회성장, 기독교 공동체의 생명력을 외해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요청되는 것이 셀 그룹이다. 셀 그룹의 발견이야말로 2000년 전에 기록되었으나 오늘의 말씀인 성경의 요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 21세기를 향한

효과적인 모델이다.

#### 1. 성경에서의 셀 교회(그룹)

먼저 셀 그룹에 관하여 성경에서 살펴보고, 예수님의 셀 그룹 제자훈련은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모세와 셀 그룹(출 18:21, 25)

모세 혼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각종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었다. 혼자서 감당하기란 역부족이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모든 일이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다. 교인들은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교인들 중에도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핵심 교인들에게만 모든 일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다. 각각의 교회 일들이 분담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각양 은사를 각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 18장 13~27절을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 십 부장, 오십 부장, 백부장을 두었다.

사도 바울과 셀 그룹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가르침과 선교이다. 그의 가르침은 소수를 대상으로 과업성취 목적달성을 위하여 결실을 얻기까지 끝까지 확실하게 가르치고 영적인 아들(제자)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그리고 그 가르침은 항상 선교를 향하여 열려 있도록 하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하고 그에게 자기가 가르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1-2)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 혹은 가는 곳마다 소수를 가르쳐서 그들을 영적 제자로 삼았다.

#### 셀 교회로서의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전례를 따라 수많은 작은 모임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자주 모이기도 했지만 가정으로 모이는 소수의 그룹에서 실제적인 성도의 교제를 가졌다(행 2:42, 46). 고린도 교회도 하나의 빌딩교회가 아니라 20-30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된 공동체였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가정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초대교회는 그 후에 누룩과 같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교회들에 대해서 요하네스 베르쿠일(J. Verkuyl)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히려 그들은 가정교회와 활동센터와 같은 매우 기동성이 높은 형식을 통하여 교제의 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사적으로 만나기도 하였고 공적으로 모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이 작은 교제의 단위를 사회의 각 계층 안에 만들어 두고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 메시지가 주는 영향을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대단한 신축성이 있었으나 무질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sup>6)</sup>.

로마제국의 거대한 무력도 초대교회 교인들의 “디아스포라”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소그룹의 확산은 실로 무서운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생동하는 원동력을 찾으려면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처럼 ‘가정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sup>7)</sup>.

## 2. 예수님의 셀 그룹 제자훈련

### 예수님과 셀 그룹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막 8:6).

예수님께서서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초기에 혼자 일하셨다. 그러나 12제자가 선택될 즈음의 하늘나라의 사업은 조직과 분업이 요구될 정도가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12제자를 택하셔서 함께 지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온 천하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셀 그룹 제자단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6) J. Verkuyl, *The Message of Liberation in our Age*,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co., 1970), p. 106

7) Lawrence O. Richards, *A New Face for the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70), p. 157.

맺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할 것을 기대하셨다. 그러나 시작은 셀 그룹이었다. 처음부터 대중운동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다. 겨자씨운동으로 시작하셨다. 5천 명이나 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소수의 제자들을 택하셨다.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축으로 사역하셨다.

예수님께서선 선교단을 파송하실 때 둘씩 둘씩 보내셨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막 6:7).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소 그룹은 2명이었다. 비교적 예수님의 옆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셀 그룹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이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로 한 그룹,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로서 한 그룹이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유복한 환경 가운데서 생활했던 것 같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배 안에 있는 종들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배열된 순서에 관심을 돌려서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4명씩 3그룹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 그룹은 그 다음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은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배신자 가롯 유다의 경우에서처럼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12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던 베드로가 명단 맨 앞에 등장하고 배신자라고 덧붙이고 있는 가롯 유다가 맨 말미에 붙어 있다.

• 첫째 그룹

시몬 베드로 ... 반석

안드레 ...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 세베대의 아들들, 우리의 아들들

• 둘째 그룹

빌립 ... 진지한 질문자

바돌로메 혹은 나다나엘 ... 참 이스라엘

도마 ... 우울한 사람

마태 ... 세리(마태 자신에 의해서만 그렇게 불려졌음)

• 셋째 그룹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 (작은 야고보, 막 15:40)

레베오, 다대오, 야고보의 유다 ... 세 이름의 제자

시몬 ... 열십당

가롯 유다 ... 배반자

예수님의 제자들 12라는 숫자는 분명히 상징적인 이유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군대 조직으로 보면 12명은 완전한 독립전투 임무수행이 가능한 분대전투 편성 인원이다. 그 후에 충원된 제자단은 70명이 넘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 말씀하셨다. 그들을 먹이시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무리들 때문에 식사 문제가 대두되었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자 4천 명의 무리를 먹이시기도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선 비교적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소수를 중요시하시며 소수를 가르치시는 것을 즐겨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 만난 사람들을 1사람, 2사람, 4사람, 12제자, 수십 명, 수백 명, 오천여 명 등으로 분류해서 어떤 그룹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느냐 하는 것을 살펴

보면, 70% 정도가 소그룹 무리들과 함께 계셨음을 알 수 있다.

마가복음 8장 6절을 통하여 우리는 셀 그룹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땅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셨다. 예수님과과의 교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서서 연설을 하신 것이 아니고 땅에 앉게 하셔서 함께 교제하셨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핵심은 동거이다.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셨다. 셀 그룹의 핵심은 함께하는 것이다. 공유하는 것이다. 서로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대가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윤원환 목사)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온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4-16)고 말씀하셨다. 셀 그룹은 그저 적은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아니라 주님을 모심으로 생동감이 있는 그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떡 일곱 개”를 잡아드셨다. ‘축사하셨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셀 그룹을 축복하시며 21세기의 기독교 운동은 셀 그룹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다. 떡을 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첫째, 나누다(Sharing)는 의미이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에 있다. 이 나누다는 것은 분열을 의미하지 않는데 한국교회는 계속 분열하고 있다. 둘째, 희생(Sacrifice)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떡이 찢기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

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나님의 몸이 나누어졌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나누어져서 온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Break는 ‘떼다’라는 뜻과 동시에 ‘휴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는 것이다. 영적인 안식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Coffee Break 소그룹 성경공부 사역이 평신도를 살리고 전도의 기회로 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떡이 예수님의 손에 주어져서 제자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제자들만 먹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모인 무리들에게 전달하도록 말씀하셨다. 재생산이다. 기독교는 생산 라인을 갖춘 공장이지 냉장고가 아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져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도 나누어 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독교의 셀 그룹 운동은 나누어 주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막 8:8)라고 했다. 셀 그룹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생동감 있는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 예수님의 셀 그룹 제자훈련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은 셀 그룹 훈련이었다. 사도(Apostle)와 선교사(Missionary)는 “보냄을 받은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배우는 자(Learner), 따르는 자(Follower)라고 할 수 있는 제자(Disciple)를 재생산해야 한다.

사도(Apostle) 선교사(Missionary)	재생산	제자(Disciple)
보냄을 받은 자 *선교: 보내는 것(파송)		계속해서 배우는 자(Learner) 따르는 자(Follower)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선교의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은 바로 셀 그룹 제자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V1]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제생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V2]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V3]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	가서	제자 삼기	=	그리스도의 입재 (보혜사 성령)
		세례를 주므로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여기 대위임령에서 우리는 ① Lordship과 ② 제자훈련(Discipleship)과 ③ 훈련(Equipping)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

### 3. 셀 교회성장에 대한 평가

셀 교회성장은 작은 셀 사역을 통해 셀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운동이 셀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유감이다. 셀 교회성장운동이 대형화되고, 오순절 성령운동과 연관되어 붐을 이룬 다음에 셀로 쪼개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셀 교회에 관한 자료<sup>8)</sup>

8) 일반적으로 셀 교회에 관한 자료는 조용기, 「성공적인 가정 셀 그룹」; 랄프 네이버 주니어, 「셀 교회 지침서」; 칼 조오지(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빌 백햄, 「제2의 종교개혁」 등이 있다.

들이 붐을 이루고 있다. 셀 교회에 관한 체계 있고도 신학적인 모델이 요청된다.

셀 교회의 특징은 생명력, 유기적인 연합(단일성과 다양성), 네트워킹 등이 있다. 셀 교회 또한 “네트워킹 교회발전” 항목에서는 의되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조엘 코미스카(Joel Comiskey)는 셀 교회의 네트워킹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다른 셀 그룹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과 네트워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셀그룹 네트워크는 이러한 상호 보완 관계를 제공해 줍니다. 다른 셀 그룹을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목회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셀 그룹 네트워크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은 댜왕(Ben Wong)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는 홍콩 네트워크입니다. 그는 ‘HK 셀 교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60개 교회 회원으로 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비기독교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홍콩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계 각 교회가 매해 셀 교회 목회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네트워크는 셀 그룹 목회의 전문가와 셀 그룹 목회를 희망하고 시작 단계에 있는 교회를 연결시켜 도움을 주게 합니다<sup>9)</sup>.

셀 교회라 함은 초대교회 시대에 가정에서 모인 교회의 패턴을 좇아가는 교회이다. 셀 교회는 가정교회 패턴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9) 「크리스찬 뉴스위크」 (2004년 5월 22일자), p. 11.

#### 4. 군인교회의 셀 교회 성장

군대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전투는 분대전투이다. 분대는 최소의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단위이다. 전장 환경은 모든 상황을 명시 규정화할 수 없으므로 상황에 따른 전투임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큰 단위를 한꺼번에 명시화하면 각개전투의 효율성이 없어진다. 각 부대는 소그룹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적으로 필자는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을 할 때 야전 군중활동 카드를 만들어서 각 소부대까지 배포했는데 거기에는 소그룹 단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수록했다.<sup>10)</sup>

#### B. 멘토링 교회성장(Mentoring Church Growth)

##### 1. 성경적인 멘토링(Mentoring)<sup>11)</sup>

‘멘토(Mentor: 선구자)’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신화인 오딧세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타이카 왕국의 오딧세이는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들 테리마쿠스를 자신의 충실한 친구인 멘토에게 맡긴다. 멘토는 그에게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스승으로,

10) 군에서의 소그룹 운동에 관해서는 필자의 “죽속운동(집단개종, People Movement)과 군선교,” 「군선교신학 2」(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pp. 58-60을 참조할 것.

11) 남자사역과 아버지학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프라미스 키퍼스는 워싱턴 광장에서 남자들만 140만 명, 미국 전역에서 900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의 핵심원리 중의 하나인 7약속 중 2번 째 약속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며 사는 것이다. 멘토링은 프라미스 키퍼스 주장사이며 델러스 신학교 교수인 허워드 헨드릭스 교수가 *Iron Sharpens Iron*이라는 책에서 멘토링을 신학화했다. 그리고 풀러신학교의 클린턴 박사가 신학적으로 심도 있게 체계화시켰다.

때로는 친구가 되었으므로, 멘토라는 말은 자신의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의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다. 이제 오늘날 이 멘토라는 말은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다. 멘토란 “비교적 경험이나 연륜이 많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잠재력을 내다볼 줄 알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도전과 격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대방이 정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균형 있게 성숙하도록 도우며, 멘토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을 멘토링(Mentoring)이라고 한다.

성경은 멘토링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수많은 예들로 가득 차 있다. 모세/이드로, 모세/여호수아, 요나단/다윗, 예수님/제자들, 바나바/사도 바울, 바나바/마가, 사도 바울/오네시모, 사도 바울/디모데, 사도 바울/디도, 사도 바울/브리스길라, 아굴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한 멘토링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개개인의 멘토가 되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적절한 신앙의 멘토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스도인 멘토들에게는 영적인 목표가 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바로 현재 세대의 삶을 똑바로 세워주는 것이다(골 1:28-29).

##### 모세 멘토링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는 국정의 중대사인 재판을 혼자 담당하여 많은 시간과 힘을 쏟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의 충고(선도)를 받고 멘토로서 훈련받은 뒤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잘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멘토링의 좋은 성경

적 모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를 위해 모세를 멘토로 삼아 여호수아를 오랫동안 준비시키셨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회막, 지성소, 시내산 등으로 데리고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전했다. 또한 때때로 개인적인 지도도 쉬지 않았다(민 11:28-30).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를 자신의 사역자 모델로 삼아 그의 행동 하나 하나를 눈여겨보면서 배웠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세를 통해 배움으로써 그를 닮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복종할 것을 맹세했다. 백성들은 모세 때와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으며 여호수아는 그의 일생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토로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라고 고백하기까지 사명을 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엘리아 멘토링(왕하 2:9)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멘토링의 예로 엘리아와 엘리사를 들 수 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고 엘리아의 후계자였다. 엘리아는 밭에서 쟁기질을 하던 엘리사에게 가서 겹옷을 엘리사에게 던짐으로써 그를 선지자로 임명하였다. 그 뒤에 엘리사는 엘리아를 그의 멘토로 삼고 길갈, 벧엘, 여리고 등 끝까지 동행하여 따라 다니며 배웠고 영감을 감절이나 얻기를 소원하였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받았다.

엘리아 선지자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 엘리사

가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 때에 엘리아 선지자가 겹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왕상 19:19). 그 후에 엘리사는 “엘리아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왕상 19:21)고 하였다.

엘리아 선지자는 자신의 멘토였던 엘리아 선지자를 떠나지 않았다. 멘토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셨던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아 선지자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아 선지자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갔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벧엘로 보내시느니라”(왕하 2:2)고 말하였지만, 엘리사는 “여호와와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왕하 2:2)라고 하였다. 벧엘에 머물러 엘리아 선지자가 “엘리아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왕하 2:4)고 하였지만, 엘리사는 “여호와와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왕하 2:4)라고 하였다. 여리고에서 엘리아 선지자가 또다시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왕하 2:6)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왕하 2:6)라고 말했다. 요단 가에서 엘리아 선지자가 겹옷으로 물을 쳐서 물이 갈라지고 건너게 되었을 때에도 엘리사는 함께 있었다(왕하 2:8).

엘리아 선지자는 자신의 멘토 엘리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전수받았다.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엘리아 선지자는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자기에 구하라고 하였을 때에,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이 감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왕하 2:9)라고 했다. 그때에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왕하 2:11)고 했다. 이때에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왕하 2:12)라고 소리 질렀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겂옷을 가지고 와서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던 대로 물을 치니 역시 물이 갈라졌다. 이를 본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왕하 2:15)고 했다.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멘토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엘리야	엘리사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기적을 베풀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과부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기적을 베풀
겂옷을 취하여 물을 치매 물이 갈라져서 건너는 기적을 베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겂옷으로 물을 쳐서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
주모의 병들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	태어나 죽은 수넬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
	독이 있는 국을 해독하는 기적을 베풀 보리 떡 이십과 채소로 일백 명 무리가 먹고 남는 기적을 베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베풀

#### 예수님 멘토링

성경에 등장하는 멘토링의 가장 훌륭한 모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멘토링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대중을 향해 복음을 전하 시기도 하셨지만,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열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삶을 나누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아무렇게나 임의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하시

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들을 일일이 멘토링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족 70인의 제자들, 그 밖에 여성 제정 후원자들, 여러 제자들과 군중들을 멘토링하셨다.

예수님의 멘토링 스타일은 오늘날의 일반 멘토링과는 달리 제자들을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 또한 제자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참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희생의 멘토이셨다. 최고의 멘토는 멘토리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자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기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셨다.

#### 사도 바울 멘토링(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는 말씀은 멘토링의 중요한 원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멘토링했고 또한 멘토링의 재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멘토링이 단지 디모데 한 사람에게 그치기를 원치 않았으며 멘토링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어서 멘토링이 그 참 가치와 계속적인 열매를 맺기 원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당시에 유일한 통신수단인 편지로 멘토링을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등은 그야말로 멘토링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때에 만나 계속된 선교여행에 합

게 사역하게 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가장 친밀한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인 ‘내 사랑하는 아들’의 단계에까지 진행되었다. 밤낮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쉬지 않고 생각하며 간절하게 보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는 네 속에 거것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딤후 1:5)라고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머니의 신앙이 어떻게 그 딸에게 그리고 그 외손자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이 멘토의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바나바 멘토링(행 4:36-37, 11:19-26)

예수님을 이은 위대한 선교사는 사도 바울이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선교를 감당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승리 이면에는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 바나바는 유명한 인물이었으나 자기를 낮추고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했다. 그 바나바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출생한(행 4:36) 레위인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으나 사도들이 그의 설교자로서의 능력 때문에 “바나바(Barnabas, ‘권위자’라는 뜻)”라고 이름을 붙였다(행 4:36). 바나바의 멘티였던 마가 요한은 로마식 이름이 마가요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었다. 예루살렘 마리아의 아들(행 12:12)이었으며, 바나바의 조카였다(골 4:10).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의 실수를 살펴보자. 안디옥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여행

을 보냈다(행 13:2-4). 마가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동행했다(행 12:25).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수종자(행 13:5)였다. 그런데 마가는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행 13:13). 그 이유는 장기간의 선교여행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부유한 집안 출생에 따른 낙담이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더욱 힘든 선교 여정에 따른 낙담과 이방 전도에 대한 회의가 들었던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행 15:38)도 있었다.

이러한 마가의 실수로 인해 제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행 15:39).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에 마가를 동행시키려고 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것이다(행 15:37-39).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더베로 갔다. 사도 바울은 선교 중심으로, 과제 중심으로 생각하여 이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관용주의자였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된다. 말 실수를 안 한다고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실수이다. 실수는 좋은 기회이다. 유대인들은 실수하는 법을 가르쳤다. 가롯 유다는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실수를 회개했다. 실수한 마가 곁에는 마가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바나바가 존재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멘토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멘토링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의 멘토였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였다. 사도 바울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고 말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디

도의 멘토였다. 바나바는 마가가 부족해도 만들어 쓰고자 했다. 우리의 장점과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멘토링이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키워서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후에 실수를 회복한 마가를 보게 된다. 마가는 베드로를 도와 통역자로 사역했다(벧전 5:13). 바나바가 관용을 베풀고 멘토링을 했기 때문에 마가는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쓰지 못한 4복음서 중 최초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마가복음에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바나바가 맞고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용납했다(골 4:10; 딤후 4:11). 사도 바울은 마가를 그리워했었다(딤후 4:11). 그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했다. 우리는 후에 마가의 회복과 사도 바울과 마가의 화해를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마가와 재결합을 했고 마가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투옥당했다(골 4:10, AD 61).

## 2. 멘토링(Mentoring) 교회 성장에 대한 평가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전문적이며 숙달을 요하는 훈련은 1대 1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헬기 조종사는 바로 옆에 부조종사를 두고 직접 1대 1로 훈련을 시킨다. 적진에 침투하여 요인을 구출해 오는 작전은 소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1대 1로 구출작전 요령을 훈련시킨다. 군인교회 성장도 이제는 부풀리기 수사놀음이 아니라 전문화가 되어야 하겠다.

성경에는 ‘멘토링(Mentoring)’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상 기업에서는 멘토링 용어와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세상 용어와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멘토링은 1대 1 훈련과 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톨릭교회에서 대모 대부 형식으로 1대 1 훈련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 C. 건강한 교회성장(Health Church Growth)

### 1. 맥가브란 박사의 교회성장학과 릭 워렌 목사의 건강한 교회

먼저 릭 워렌 목사가 맥가브란 박사의 교회성장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본교는 맥가브란 박사의 교회성장학이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정은 좋았으나 수적인 성장에 치중하였다는 단점을 지적하고, 맥가브란 박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맥가브란 박사의 교회성장학의 단점을 보완하여 내세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질적인 교회성장 이론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릭 워렌 목사는 자신이 맥가브란 박사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74년에 나는 일본에서 학생 선교사로 봉사했었다. 나는 나가사키에 있는 남침례 교단 소속의 어떤 선교사 부부의 집에서 기거했다. 하루는 선교사님의 서재를 뒤적다가 HIS라고 하는 기독교학생회(IVF)에서 발행한 기독교생 잡지를 보게 되었다. 그 잡지를 뒤적다가 염소 수염에 반짝이는 눈을 가진 매력적인 한 노인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 기사의 부제는 “왜 이 사람은 위험 인물인가?”라는 것이었다. 서재에 앉아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었을 때 나는 그

내용을 통해.....큰 영향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 기사는 인도에서 태어난 선교사 맥가브란이 어떻게 교회성장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맥가브란을 통해서 나의 비전을 이미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부터 내가 목회할 교회를 스스로 개척하는 쪽으로 교정시켜 주셨다고 말할 수 있다.

맥가브란이 지적한 문제들은 일본에서 고통스러울만치 성장이 더딘 교회들을 목격했던 나에게 아주 적절하게 느껴졌다..... 맥가브란의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원리들- 성경적, 문화적, 그리고 지도력에 관한 원리들-을 찾는 일에 바치도록 이끄심을 느꼈다. 나의 평생에 걸친 탐구작업이 시작된 것이다.<sup>12)</sup>

## 2. 건강한 교회로서의 새들백 교회

주로 새들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 교회들은 대형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 윌로우 크릭 교회는 다양한 소그룹을 강조하지만 특별히 건강한 교회로서의 신학적 견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새들백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Purpose Driven Church)”라는 건강한 교회<sup>13)</sup>로서의 분명한 신학적 견지

12) 릭 워렌,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화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7), p. 39.

13) 「새들백교회 이야기」 추천사에서 드루 신학대학원 학장인 레오나드 스위트는 “이 책은 교회의 건강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룬 책들 중 고전적 작품이 될 것이다”(릭 워렌 1997:추천사)라고 했고, 풀러 신학대학원 심리학부 학장인 아치발드 하트도 “교회가 당면한 절박한 이슈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라고 지적한 워렌 박사의 통찰은 혁명적이다”(릭 워렌 1997:추천사)라고 했다.

를 가지고 있다.

새들백 교회에 가 보면 건강한 교회로 보인다. 첫째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건강해 보인다. 건강하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다. 키가 크면 건강해 보이는 이유와 같다. 둘째는 웰빙 교회처럼 교인들의 육신적인 건강을 도모하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많다. 건강한 교회의 문화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필자의 아들은 “디즈니랜드에 갈 필요 없네”라고 하면서 새들백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다고 했다. 교회를 둘러보는 것, 교회 안에서 사먹는 것만 해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고 있고 더구나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새들백 교회가 처음 이야기한 건강한 교회개념은 아니다. 새들백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릭 워렌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인 진리를 현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교회가 건강하다는 논리는 몸집이 비대한 것이 건강하다는 표현과 어떻게 다른가? 대형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이고, 교인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생동감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모여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형교회를 세우고자 했을 때 산으로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의 교회관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성장인가? 대형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이유는 교회의 콘텐츠가 많기 때문이다. 백화점에 손님들이 많은 것과 같다. 반면에 대형교회 구조에서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생명력을 가진 예수님의 교회발전을 도모하기가 힘들다. 대형교회를 활발한 교회라고 볼 수는 있어도 건강한 교회라고는 볼 수 없다.

몸의 기능을 잘 유지할 때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능을 잘 유지할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기능은 영혼구원이다. 대형교회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복음전도와 영혼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대형교회 모델보다는 셀 교회 모델이 바람직하다.

릭 워렌의 건강한 교회 이론은 성경적이고 현실적이며 질적인 교회성장 이론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절대적인 교회성장 이론은 아니며 평가하고 수정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 3. 목적이 이끄는 교회(Purpose Driven Church)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자. 앤더슨(Leith Anderson)은 “21세기에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간주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역사의 수백 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목적으로 보고 사람을 수단으로 보았다”<sup>14)</sup>고 했다. 교회가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릭 워렌 목사가 말하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서 목적은 교회의 원리를 말하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목적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성경적인 교회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릭 워렌이 말하는 목적은 건전하고 성경적이므로 목적이 이끄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로 볼 수 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는 목적만 추구하면 된다. 그러나 목적이 목표가 되고 목표만 향해서 나가게 되면 프라미스 키퍼스 남자사역에서 말하는 “터널 비전(터널 앞만 보고 달리는 비

전으로서 옆을 보거나 뒤돌아 볼 수 없는 잘못된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하나님의 속성 중의 하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뒤집으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너희 인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이 미래의 길을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예측을 초월하시는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변화에 민감하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목적을 미리 세우면 바꾸시고 뒤집으시는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며, 우리가 내세운 목적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목적대로만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목적을 가지되 목적에 수반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했다. 우리는 목적만을 너무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목적을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앞서게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릭 워렌 목사가 말하는 목적은 성경적 원리이므로 큰 문제가 없겠지만, 목적주의로서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릭 워렌 목사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인상을 주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개념을 주장하면서도 변화에 대처하는 융통성 있는 교회를 주장하고 있다. 릭 워렌은 “우리는 더욱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교회 체질을 만들어 냈다”고 했다.<sup>15)</sup>

14) 필자는 이것을 PC 라고 표현한다. People과 Change 이다. 필자는 Christ가 Change를 의미한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화를 주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교회의 최종 목적이 교인들이 머무는 온실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회를 구원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릭 워렌, *op. cit.*, p. 38.

14) 리드 앤더슨 「21세기를 위한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솔로몬, 1997), p. 58

새들백의 목회는 미리 계획된 것이 거의 없었다. 나는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장기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이 신약에 나오는 다섯 가지의 목적을 따라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나는 그것들을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전’을 장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해 가는 세상에서 비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들로부터 유익을 얻어 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sup>16)</sup>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거대하고 공효한 문”이 열리는 곳으로 향해 가지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접근하는 이중성이 있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 서로 상반되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개념과 융통성 있는 교회 개념을 추구하는 내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D. 자연적 교회발전(NCD)

과거에는 교회성장에 더 관심이 많았다. 양적이고 외적인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교회건강에 관심을 가진다. 질적이고 내적인 것이다. 과거 성장하는 교회 유형은 양적 성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만을 교회성장으로 볼 수는 없다. 질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 건강한 교회에 더욱 강조점을 두게 된다.

우리는 자연적 교회성장(NCD)과 관련해서 원리나 실제나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자연적 교회성장 이론은 교회성

장 원리를 분석하였다. 원리에 강조점을 둔다. 교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다는 것이다. 알아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적당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병적인 요소를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성장 접근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모델 중심 접근 방법이다. 갈보리 체플, 새들백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등을 모델로 삼아서 교회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경비를 들여 미국까지 가서 새들백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의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을 따라 하기만 한다면 교회가 성장할 성공률은 적어진다.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무조건 모방하다 보니 부작용도 나타나게 된다. 대개 대형교회를 성장 모델로 삼는데 규모만 크다고 건강한 교회냐 하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대형교회는 재정이나 인제나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로 대형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둘째, 원리 중심 접근 방법이다. 워렌 위어스비(Warren Wiersbe)는 “방법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을 수 있지만 원리는 정해져 있다. 방법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원리는 결코 변치 않는 것이다”고 했다. 공통적으로 어느 교회든지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자연적 교회성장팀은 교회성장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엄청난 조사 작업을 했다. 사회과학적으로 이같이 광범위하게 조사한 유례가 없다. 6대주 32개국 18개 언어로 1,000여 교회에 대

16) Ibid.

해 420만 개의 설문으로 조사했다. 그리고는 독일 일반대학에서 일반 심리학과 통계학을 연구한 통계학자인 크리스토프 셔크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했다. 420만 개의 설문 응답을 수집하여 엄밀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철저히 분석하여 공통분모를 발견했다. 그 결과는 일관된 조사 결과로 나타났으며 적합한 대상을 다루었으므로 매우 타당하고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발견된 원리,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여덟 가지 질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Empowering Leadership)

사람이 중요하다. 사역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있다.

② 은사 중심적 사역(Gift-Oriented Ministry)

미국교회 교인의 80%가 자기 은사를 모른다고 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가르침은 은사를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자가 가르치고 있을 때 4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다. 은사 없이 가르치는 본인이 괴롭다. 그 사람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괴롭다.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니 괴롭다. 하나님께서 괴롭다.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별로 적절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은사를 개발해야 한다. 새들백 교회에 가보면 은사별 사역의 종류가 많다. 그런데 새들백 교회처럼 많은 것을 늘어놓기만 한다고 최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교회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가? 교회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가?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지 구호선도 아니며 더군다나 상선은 아니다.

오늘에 와서야 셀 교회,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원

래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그런데 로마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와 연관되면서 교회는 비대해지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중성을 포함하여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고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서는 이렇게 비대해진 교회가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소그룹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작은 교회, 가정 교회, 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셀 교회는 교인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인들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셀 교회, 가정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은 구역예배를 조그만 교회로 개발하는 것이다.

③ 열정적 영성(Passionate Spirituality)

④ 기능적 조직(Functional Structures)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직은 다른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치를 쳐야 하는데 과감히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⑤ 영감 있는 예배(Inspiring Worship)

⑥ 통전적 소그룹(Holistic Small Groups)

⑦ 필요 중심적 전도(Need-Oriented Evangelism)

전도의 방법은 변할 수 있어도 전도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다.

⑧ 사랑의 관계(Loving Relationship)

8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을 중점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8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을 높여야 한다. 어느 교회가 낮고 부족한 부분을 자연적 교회성장 본부에 알리면 그 낮은 항목을 극복하는 방법,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방법을 소개해 준다.

그런데 자연적 교회성장에도 약점은 있다. 내적 성장을 측정하는 틀이 없다. 그리고 과연 자연적 교회성장의 통계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동양의 토정비결도 통계 결과이다. 통계 결과를 사람의 운명에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적 교회성장의 통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또한 자연적 교회성장 이론과 같이 원리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된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것은 서구적이다. 그래도 서구는 기독교 문명, 성경문화의 토양 가운데에서 자라났다. 반면에 동양과 아시아와 한국은 다르다. 한 마디로 원리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폴러 교회성장학의 아버지 맥가브란 박사는 인도 선교 경험 30여 년에 근거해서 교회성장학 체계를 이루었는데, 선교의 장애가 되는 것은 Truth(진리/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회적인 장애물을 제거, 극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교회성장학이 사회학에 기초했다고 비판을 받게 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오랜 선교 경험과 실재를 함께 느끼지 못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의 여인에게 처음부터 진리의 내용으로 접근하지는 않으셨다. 사도 바울도 아덴 접근 방식에 있어서 엘렐릭스(elenctics)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필자의 군목사역, 목회 경험을 되새겨 보면 많은 부분에서 진리 외의 문제 가운데에서 고민하곤 했다.

자연적 교회성장 원리는 참 좋다. 필자도 선교적 교회로서의 안디옥 교회 모델과 원리를 분석하고 어느 교회에서 그 모델과

원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한 일이 있다. 문제는 평신도와 다른 부분은 선교적인데 목회자 부분에서 선교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어 담임목사에게 민망했던 적도 있었다. 한국교회에는 원리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적인 원리로 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세상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거짓으로라도 축복을 가로챈 야곱과 같이 막무가내로 교회를 물고 가기도 한다. 과거 세계에는 한국교회만큼 급성장한 곳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성장 궤도에서 멈추었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교회 성장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서구의 어느 교회성장 평가팀이 한국교회 성장을 분석, 평가하였는데, 한국교회의 성장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배울 만한 모델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엄밀하게 말해서 성장한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성장하는 한국교회에서 비성경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첫째로 한국교회가 분열하면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분열이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회 분열의 이유가 진리 문제가 아닌 정치적이거나 대인관계에서 유발되고 있다.

둘째로 영적인 카리스마의 모습과 구분되는 보스(Boss)적인 리더십이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교회 모습보다 교회 주식회사처럼 교인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구경 다니는 교인들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해야 교인들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강해 세미나보다 무슨 교회성장 세미나를 하면 목회자들이 물려드는 이유도 그런 면으로 볼

수 있다. IMF형 교회성장이다. 겉은 뻥지르르하고 대단하게 포장했지만 속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 III. 하나님 나라의 군인교회: 교회발전 모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에덴동산의 영적인 역할은 노아 방주,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된다. 먼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자.

발전 과정	영역
에덴동산	아담, 하와
노아방주	하나님의백성에 대한 언약적인 구원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백성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백성, 이방인의 돌
교회	하나님의백성,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백성, 온 세상 천하 만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이전에도 있었고 교회와 함께하기도 하지만 교회보다는 포괄적이다. 래드(George Ladd)는 교회(에클레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바실레이아)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창조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리더보스(Herman Ridderbos)도 두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바실레이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대 구속 사역이며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고 바실레이아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다. 바실레이아는 만물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며 모든 역사의 완성점을 가리키며, 온 우주를 범위로 하여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가져오며, 시간과 영원을 채운다. 에클레시아는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세움 받은 백성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 선포에 의해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어 함께 모이며, 현재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그 나라의 구원을 상속할 것이다.

어린아이는 키가 무럭무럭 크다(교회성장 모델). 청년은 건강하다(교회건강 모델). 그러나 장년은 성숙하여 사명을 감당한다(교회발전 모델). 반면에 노년은 새로운 일들을 벌이기 위해 과감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교회정체 모델). 우리는 교회발전 모델로 나아가야 성숙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기독교교회(OCU)의 모토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For God For the Country)”였다. 군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존재한다. 군인교회가 지휘관 덕택에 합동세례식 숫자를 늘리는 식의 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김진영 장로(전 육군참모총장)가 제안한 기독교전우회 개념<sup>17)</sup>과 같이 어디에 좌우

17) 김진영 장로(당시 육군참모총장)는 군목이 계급장을 달지 않는 군무원 제도와 ‘기독교전우회’를 제안했다. 기독교전우회 개념은 우선 계급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서 군 선교사역을 하자는 것이다. 당시의 군 선교는 계급을 인정하고, 장교 위주의 군 선교를 추진했으나 부사관, 병사, 군인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힘을 모아서 함께 사역하자는 개념이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교대상인 병사들에게는 계급을 불문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호응을 얻었고 군 선교사역에 도움이 되었다.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질적으로 발전된 면모를 갖추는 군인교회가 되어야 한다.

## A. 가정교회 발전

고넬료와 그의 가정,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정에 관한 성경 말씀(행 10:16:31-34)은 가정 전도의 가치를 충분히 말씀하고 있다. 초대교회에서 가정은 교회의 모판이 되었다. 오늘날도 가정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는 중국 기독교의 능력과 희망이 되고 있으며 미국 한인교회 안에서도 가정교회가 붐을 이루고 있다.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이요, 좋은 교회의 모델이다.

### 1. 가정교회의 성경적 근거

신약성경에는 ‘집’ 또는 ‘가정(oikos)’에 관한 용어가 사용되면서 가정세례가 언급된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 고넬료는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행 10:2).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베드로가 고넬료의 “너와 네 온 집이 구원 얻을” 메시지를 가지고 온다고 말했다(행 11:14). 그리고 루디아와 “그녀의 집”은 세례를 받았다(행 16:15).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관심을 집중했다. 간수와 “그의 집”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을 받았으므로(행 16:34), “저와 온 집이 기뻐하리라”(행 16:34)고 했다. 고린도에서는 “그리스보가……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행 18:8)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고전1:16),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대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고전 16:15)고 했다. 가정 권속 전체를 포함하여 영적인 공동체, 가정 교회가 된 것이다.

초대교회는 가정이 곧 교회였다. 이것을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한다. 고넬료 가정 공동체는 곧 교회였다. 그들은 베드로 교역자를 잘 모셨다. 가정의 온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도 집이 교회가 되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을 도왔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를 멘토링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은 서양 최초의 교회를 자기 집에서 시작했다.

### 2. 가정교회 발전의 신학적인 추구

크리스천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일 뿐이다.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이다. 가정 교회<sup>18)</sup>는 천지창조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천국가정까지 연결된다. 초대교회는 종말론적인 교회였는데 가정교회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의미에서 구원받은(받을) 모든 백성을 포함하여 하나의 범주, 가족으로 엮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폴 히버트(Paul Hiebert) 교수가 교회를 언약공동체로 본 것과 연관해서 볼 때 가정은 언약의 장소이다.

18) 가정교회를 Home Church 혹은 House Church 혹은 Family Church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Home Church는 개교회주의 색채, House Church는 외형적 교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으나, Family Church는 천국가정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자는 ‘Family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각 가정은 천국의 셀 그룹이고 교회는 천국의 한 마을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연결된 가정, 가정에 연결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해된 가정교회이다.

그러면 가정교회의 장점은 무엇인가? 먼저 딕 스코긴스(Dick Scoggins)는 가정 교회의 장점을 역설한다.

가정교회는……도시문화의 모자이크를 침투하는 융통성을 제공한다<sup>19)</sup>.

전도, 제자훈련, 목양 등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재생산의 과정에서 생긴 2가정에서 6가정으로 이루어진 3곳의 가정교회들의 펠로우십이 형성된다. 이 독립교회와 셀 가정교회들을 절충한 펠로우십(3가정교회들로부터 구성)은 교인들의 관계가 내부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고, 가정교회들 간의 관계도 깊어질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한다. 또 교인들은 불신자와의 관계, 즉 결과적으로 이들은 복음을 위한 다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무된다. 이 펠로우십은 가정교회들의 융통성과 생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정교회의 휘발성을 큰 연합모임으로 보완할 수 있다<sup>20)</sup>.

우리는 가정교회 접근방식을 탐구하는 동안 소그룹의 역동적인 면이 있다는 데서 충격을 받았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교회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한 가정이다<sup>21)</sup>.

19) 하비 콘 외, 「도시교회 개척부터 폭발성장까지」 강승삼,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p. 440.

20) *Ibid.*, p. 471f.

가정교회 교인들의 모임이 지닌 특유한 파스함, 즉 함께 식사하는 것은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친교하게 하는 속도를 가속시켰다. 이 가정교회의 친밀함 정도는 엄청났다<sup>22)</sup>.

큰 그룹 모임 강조는 융통성을 잃고 있었다.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모임 형식과 계획성은 엄격해져 버렸다. 의심할 여지없이 가정교회에서의 융통성이야말로 최대 장점 중 하나였다<sup>23)</sup>.

이상의 글을 참고하여 정리하면 가정교회의 장점은 첫째, 가정교회는 친밀감을 나누는 속도가 빠르다. 둘째, 가정교회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셋째, 가정교회는 관계를 증진시킨다. 가정교회들은 상호교류적인 가정교회 체계를 세우면 큰 연합 모임으로 발전된다. 넷째, 가정교회는 융통성이 있다. 다섯째, 가정교회는 셀 그룹의 역동적인 면이 있다. 여섯째, 가정교회는 이웃과 사회에 침투하는 힘이 있다. 일곱째, 가정교회는 복음전파의 다리가 된다.

### 3. 중국 지하교회의 가정교회 발전

중국 지하교회는 가정교회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하워드 스나이더의 주장에 의하면, 21세기에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변모하게 된다. 팻 로버트슨은 “현재대로라면 아시아 부흥의 선두 주자인 일본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공산주의 이후에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신 천년에 아시아의 초강국으로 부

21) *Ibid.*, p. 476.

22) *Ibid.*, p. 477.

23) *Ibid.*, p. 481f.

상할 중국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가?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문화 가운데 하나를 이룩한 중국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신앙에 적대적이었다. 1966년 홍위병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잔존교회 세력을 뿌리째 뽑아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지하로 숨게 되었다. 아무도 1945년에서 1979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혹은 믿음을 저버렸는지, 혹은 숨은 신자로서 명맥을 유지했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중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6,000만 명이 넘고 지금도 매일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중국 태생 톰슨 브라운(G. Thompson Brown)은 이렇게 증언했다.

모택동 이후 중국에서 기독교가 “들을 귀”를 얻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들, 가정 집회 현장, 성경의 부족, 신학원에 입학하려는 많은 수의 젊은이들 등 공산당원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중국교회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분열되어 있는 로마 가톨릭교회, 공식적으로 조직된 삼자 애국 운동, 그리고 새로 등장한 가정교회 등이다. 톰슨 브라운은 가정교회의 “대부분의 인도자들이 평신도들과 파트 타임 복음 전도자들이었고 그 중 많은 사람이 여성이었다”고 말했다.

#### 4. 가정교회로서의 군인교회 발전

군인교회는 민간교회보다 한 집단 안에 노출되어 있고 결속력이 강한 집단이므로 통제가 용이하다.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족처럼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군인교회가 가정교회 발전을 이루어서 군대집단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면 놀라운 군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 B. 목장교회 발전

##### 1. 목장교회 발전의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인 추구

큰 목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목장은 곳곳에 있다. 목장이 수만 마리 양떼들을 모아 놓고 공장과 같이 가동할 수는 없다. 곳곳에 작은 목장들이 산재해 있고 목장마다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양사역이 존재하는 교회가 목장교회이다.

목장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목자훈련이다. ‘제자훈련’ 용어에 습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용어를 살펴보고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보자. 제자훈련은 펠로우십(Fellowship)이다. 이는 학생이 선생을 추종하듯이 따르는 자세를 의미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히 자기 추종세력을 모으신 분이 아니시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일꾼을 만드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재생산을 의도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임”이라는 말씀의 표현이 그러하다.

이 원리를 잘 정리한 신학자는 로버트 콜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목표가 재생산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펠로우십(Fellowship) 용어에서는 재생산의 의미가 약화되어 있다.

예수님은 제자 삼으시는 것이 아닌 가르칠 수 있는 제자(즉 선생)를 원하신 것이다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좋은 방법이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에 성공하셨는가? 예수님의 제자 삼음의 목표는 그들이 유대의 틀을 넘어서서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 의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본토 유대인보다 변방 족속(Marginal People, 이중 문화권자)들을 택하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 제자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의도를 실천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택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러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거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논쟁거리였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했으나 직함을 가진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임을 자처했다. 이는 자기 이름 앞에 쓰는 사도 단어를 대문자를 쓰지 않고 소문자를 쓴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선교사를 의미하는 사도는 라틴어 ‘mitto’라는 용어에서 왔는데 이는 보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할 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목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목자는 양떼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이다. 제자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약한데, 목자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된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훈련은 영적인 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목자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성경에서 목자는 요셉, 모세, 다윗, 그리스도, 베드로, 장로들에게 적용되었다.

무엇보다도 대제사장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히 선생-제자 차원에서의 선생이 아니라 목자장이셨다. 목자장 예수님께서서는 처음 어부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는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어부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는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에 대해 혼계하기를 부득이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 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본이 되라고 말했다. 오늘날의 목사도 목자이다.

필자와 일치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지구촌교회(이동원 목사)는 목장사역 비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지구촌교회의 목장사역 비전

.....마을별 혹은 특성별로 교우들에게 안정적인 가족구조를 제공하여 교회 정착과 영적 성숙, 공동체적 봉사(선교와 구제)를 실현하도록 섬기며 더 나아가 목장 제생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 1. 가족 구조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친족)이라 칭하며(딤후 3:15)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1:12) 또는 가족(엡 3:14)이라고 부른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 가족구조가 필요하며 목장은 바로 이 필요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 2. 교회 정착

인간은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교회 생활 초기에 따뜻한 영접은 필수적인 정착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이것은 어려운 것이다. 목장은 교회 정착의 초기단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

### 3. 영적 성숙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고전 3:1)라고 부른다. 그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목장은 바로 이런 영적 가족의 상호관계를 통한 영적 성숙의 장이 될 수 있다.

### 4. 공동체적 봉사

교회는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주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소위 주님의 명령으로 불리워지는 선교와 가장 큰 계명으로 불리워지는 사랑의 실천, 곧 구제라 할 수 있다.

### 5. 목장 재생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의 마지막 명령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마 28:19)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재생산이라고 말한다. 제자 개인의 재생산 못지않게 공동체의 재생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6.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복음전파와 함께 천국이 가까웠다(마 4:17)라고 말씀하시며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말씀하셨다. 목장의 재생산과 선교지의 교회개척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 2. 군인교회의 목장교회 발전

군대의 군목은 목자이다. ‘군목’이라는 말은 군인 목자라는 말

이지만 ‘군대목자’라는 말로 생각해도 된다. 군목은 훈련을 받으며 야전 광야를 다니는 군인 양떼들을 목양하는 목자인 것이다. 미군 부대에는 군목이 인도하는 휴양회 제도가 있다. 목자가 양들을 쉬 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병사들을 데리고 안식하며 정신적인 충전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병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필자는 미 8군 군목 재직시 “군목들은 누가 안식을 시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서 미군 군목들을 위한 휴양회를 인도했는데, 미군 측에서 그 행사명을 “정 군목이 인도하는 군목들 휴양회(Chaplain Chung’s Chaplains Retreat)”라고 했다.

군인교회는 군인교회 건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병사들은 항상 이동한다. 그 병사들을 따라가서 야전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광야교회와 같다. 그 야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무형적인 군인교회 양태로 교회발전을 도모해야지, 군인교회 건물만 생각하는 교회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 C. 언약교회(True Church) 발전

### 1. 언약교회의 성경적 근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셨다. 가시뿔밭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도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 등은 아브라함, 다윗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다윗의

24) 「크리스찬 뉴스위크」(2004년 5월 22일자), p. 6.

영적인 후손과도 맺으신 언약이며, 영적인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언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축복하시는 언약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이 언약의 축복(Family, Land, Blessing)을 받게 된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언약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가정과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언약교회를 축복하셨다. 다윗의 영적인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언약교회는 다윗에게 내리신 축복을 믿음을 통해 받게 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축복이다.

남편과 아내의 언약적인 관계의 비밀은 언약교회에도 적용된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31-32).

## 2. 언약교회 발전의 신학적인 추구

먼저 하나님의 언약 체결의 특수성을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 셋째, 계속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영원한/영속하는 언약). 그러나 여러 개의 언약들은 별개의 언약이 아니며 서로 발전, 보완되면서 하나의 언약으로 이어져 가고(영속성) 있다. 넷째, 시대마다 대표자와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표자 둘만의 언약 체결은 아니며, 언약의 적용은 대표자의 시대 백성들과 이후의 백성들까지도 포함한다(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발전 도표 참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민족(Family), 땅(Land), 복(Blessing)의 내용을 가진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이 요소는 다윗과 체결하신 언약과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에 담긴 위의 3가지 요소(축복)를 아브라함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은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의 원형이 되며, 아브라함 언약에 담긴 축복의 요소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

성경에서 언약 관계는 세 가지 경우에 적용되었다. 첫째, 하나님과 자기 백성, 둘째, 그리스도와 교회, 셋째, 남편과 아내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반열에 속한 자들에 대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다. 이 언약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언약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게 된다.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시발전을 보게 된다. 언약은 진리이며 교회의 핵심이다. 교회는 세례와 성찬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언약은 세례와 성찬과 관련을 가진다.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징표이며,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찬이 언약이다.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을 가진다. 이렇게 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교회발전이다.

### 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발전

구 언약				새 언약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	
에덴동산	노아방주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할례		세례/성찬	

여기에서 두 선교 신학자의 도움을 빌려올 필요가 있다. 폴 히버트(Paul Hiebert) 교수는 교회를 언약공동체로 보고 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며, 교회는 언약공동체이다.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성경의 큰 흐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이다.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보여 주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을 준수했거나 불순종했는가를 하는 것을 보여 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출 19:5-6).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할 언약공동체이다.

또한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약에 대한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여 준다. 팔머 로버트슨(O. Palmer Robert-

son)은 노아와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 아브라함과 의 언약은 약속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은 왕국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완성의 언약으로 보았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교회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인위적인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인 클럽도 아니며, 돈이나 사람으로 만든 법인체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인 언약공동체이다.

#### 군중 또는 클럽으로서의 교회

도시의 교회는 종교클럽이 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다. 클럽은 하나의 목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임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쉽게 깨질 수 있고, 그 구성원들은 다른 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협의체를 통해 자신이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 법인체로서의 교회

공식적인 조직을 소유하고 전문화된 역할과 관료적 관리체계가 갖추어진 기관이다. 평신도는 방청객이나 소비자일 뿐이다. 실제로 되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참여도가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급료를 받고 하는 사람보다 헌신도가 낮다. 교회는 전문가가 운영한다.

마치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유형의 교회는 자신들이 대중에게 무엇을 “필아야 할 것인가”와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인가”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 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

분명히 교회는 클럽이나 법인체 같은 행위를 피해야 한다. 더욱이 교회는 중요한 대안, 즉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구성원들의 바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중속되는 언약공동체를 제공해야 한다.

하우어바스와 윌리몬은 “(교회는) 그 안에서 맺은 언약에 사람들이 충실하고, 자신의 적들을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그럼으로써 놀라운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세상이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장소이다”라고 기록한다.

지역교회가 도시적 환경 속에서 진실한 언약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초대교회는 그러했다. 초대교회는 외로운 자들과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만일 오늘날 교회가 종교 클럽이나 법인체가 되는 것과의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그 시대에 굴복하는 다른 인간조직들과 같이 이미 되었거나 될 것이다.

폴러신학교의 벤 앵겐 교수는 교회발전 개념으로서 “True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필자는 이 용어를 “올바른 교회”라고 번역하고자 한다. 그의 교회발전 신학은 진리에 입각한 교회가 올바른 교회이며, 진리에 바로 서게 되면 교회가 발전되게 되고 교회가 발전된다는 것은 곧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의 박사 논문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는 올바른 교회는 바로 언약에 근

거한 교회를 말한다.

벤 앵겐 교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공동체로 보았다.

#### 성경에 나타난 언약공동체

선교하는 교회는 지역에 나타난 왕 되신 하나님의 언약공동체이다……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창 15장)을 맺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공동체로 간주되었다……그들(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백성들)은 그들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말미암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왕의 언약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분점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다. 누구든지 선교와 관련하여 지역 교회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왕의 언약공동체인 지역 교회의 특별한 신분과 목적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sup>25)</sup>.

벤 앵겐(Van Engen) 교수는 “상황화 이론은 복음이 다양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몇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sup>26)</sup>고 하면서, 중요한 4가지 상황화 모델 즉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적 적절성(Cultural relevance), 해방(Liberation), 타종교와의 대화(Interfaith Dialogue)에 이어서, 상황 속의 하나님 알기로서의 상황화 모델로 ‘언약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of Covenant)’을 제시하고 있다<sup>27)</sup>.

25) 찰스 벤 앵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p. 137, p. 140.

26) *Ibid.*, p. 98.

27) *Ibid.*, pp. 102-123.

### 3. 군인교회의 언약교회 발전

군인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언약교회 발전을 도모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축복을 누려야 한다. 언약의 기본은 신구약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약교회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올바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군대는 일종의 폐쇄된 사회이다. 개방된 교회는 서로를 볼 수도 있고 서로를 편면할 수도 있다. 민간교회는 노회, 총회가 있어서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군인교회도 군종목사단이 있지만 민간교회와 같이 행정적인 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부대 지휘관과 부대 상황, 군목의 사역 방향에 따라 독립적인 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로 인해 간혹 문제가 생기고 시비가 생겨도 갈등 해결 방법이 묘연할 때가 있다. 더구나 군인교회에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교회에 나오게 된 초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게는 교회 행정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자신들이 경험한 인생경험과 군대방식을 교회에 가져오려고 할 때 일반적인 교회 방식과 군목의 스타일이 배치될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터이므로 진리에 바로 선 올바른 교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 D. 네트워킹 교회 발전

과거에는 가정에서 모든 것을 생산했지만 문화가 발달되면서 각자 생산한 것들을 교환하며 살았다. 이제는 고도의 전문화(분업화)를 통하여 각자의 전문 품목들을 분배하고 구입, 조립하여

생산한다.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컴퓨터 부품은 엄청난 종류로 한 회사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것들은 네트워킹 되어야 생산이 가능하다.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 자동차 회사가 도산하면 납품하는 중소기업 부품회사도 함께 도산하게 된다. 네트워킹의 원리 때문이다. 이렇듯 혼자서 살 수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한 교회가 교회의 모든 선교와 교회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기획, 추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사역이 되지 못한다. 교회를 돕는 기관과 컨설팅을 통해 발전도모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네트워킹 교회발전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네트워킹 교회발전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첫째는 관계와 네트워킹을 설립하고 세우는 일이다. 둘째는 이 관계와 네트워킹을 통해 교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이므로 관계를 중시한다. 21세기는 네트워킹 시대로 발전할 것이다. 리드 앤더슨(Leith Anderson)은 「21세기를 위한 교회(A Church for the 21st Century)」에서, 21세기에 사람들은 기관이나 조직에 소속되기 보다는 네트워킹을 통해 연관을 갖기 원하므로 통합보다는 네트워킹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통합보다는 네트워크를 원한다.

통합, 제도화, 관료주의가 20세기를 특징지었다.....물론 어떤 조직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문화는 점점 오래된 기존 전통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조직에 제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기보다는 그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치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과 제도에 질려 그것을 성가신 관료주의라고 생각한다.....조직과 제도는 너무 많은 다름이 있다.....교회도 목사나 전통을 위해서 있지, 보통의 사람들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여전히 각 사람들과 연관되기를 원한다. 아마 지금 우리가 소속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들은 상호 지원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슷한 문제나 기회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감지한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원한다. 우리는 공통 요소에 근거해서 사람과 그룹과의 느슨한 연관을 시도한다. 네트워크는 자발적인 관계이다. 네트워크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한 우리는 관계를 계속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멤버십이나 소유물, 통합체를 갖지 않는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형태의 구조도 갖지 않는다. 네트워크는 조직에 있어서 느슨하다. 구조에 있어서 간단하다. 고도의 융통성이 있다. 비교적 일시적이다.....교회들 가운데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공식적인 조직보다 우세할 것이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파적인 연관보다 더 강한 많은 공통된 요소들(교회의 규모, 지역, 인종, 언어, 정치적 이슈, 그리고 사회·경제적 신분)이 있다.

사람들은 교파가 아니라 교회를 선택한다. 그들은 지역 교회를 형식적인 조직보다는 네트워크로서 더욱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는 하나 가입하지는 않는다.

21 세기의 교회는 네트워크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교단의 계휴보다는 개인적인 매력에 근거해서 그들의 교회를 선택할 것이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득을 느끼는 한 그 교회나 교육 기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면, 그들은 예배하고 봉사하며 듣고 배울 것이다. 그들은 애국자가 그들의 조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소비자가 서비스 기관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의 교회를 바라볼 것이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sup>28)</sup>.

동양의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은 동일한 시대에, 서양의 로마는 도로를 만들었다. 도로망은 교통망이 되어서 문화를 발전시켰다. 21세기 인터넷 시대는 열린 시대이고 글로벌 시대이다. 세계는 엮어져 가고 있다. 교회는 외톨박이 우물 안 개구리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머물러 있을 때 사탄은 세계를 네트워킹해서 지배하고자 한다. 교회는 네트워킹 교회발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

## 1. 네트워킹 교회발전의 성경적인 근거

네트워킹 교회의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28) 리드 앤더슨, 「21 세기를 위한 교회」, 황성철 역(서울: 솔로몬, 1997), pp. 55-58.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마 13:47-48). 천국 비유에 그물이 등장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네트워킹 교회를 잘 말해준다.

네트워킹(그물망)과 웹 망(거미줄)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물망은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한다. 그러나 거미줄은 함정이고 걸려든 생물을 죽이는 것이다. 인터넷은 상업, 정치, 세속사회의 복합체이다. 하나님의 나라 네트워킹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네트워킹으로 포함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네트워킹 교회이며 그 사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네트워킹 교회 발전이다.

모세는 히브리인이며 이집트인이었고 사막 한 구석에서 목자가 되었던 광야인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이집트 광야 지역을 네트워킹할 수 있었다. 일단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이었다. 출애굽 사역은 애굽을 알고 이스라엘을 알고 광야를 알아야 하는데 모세는 그 자격을 갖춘 지도자였다. “모세는 사막을 횡단하는 행군을 위해 이 엄청난 무리를 조직하는 이집트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sup>29)</sup>. 모세는 40년간 사막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다. 앞서 나온 목장교회의 지도자였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모세는 “광야 방랑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sup>30)</sup>.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며 로마인이었고 헬라 문명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앙과 유대 나라를 철저하

29) 하비 콘 op. cit., p. 352.

30) Ibid., p. 352.

게 이해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빌 3:5-6)이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이해하고 파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오해에 대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고 사도 바울을 설명하셨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로마, 헬라를 네트워킹할 수 있었다. “바울은……복음을 유대 나라 곳곳뿐만 아니라 주로 이방 세계에 전파하였다. 바울의 이교도 로마 제국에 대한 세 번의 성공적인 선교 여행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이단 종교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세계적인 신앙으로 변형시켰다. 바울이 세계 선교 과업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한 근본적인 도구는 네트워킹이었다”<sup>31)</sup>. 그는 네트워킹 사역을 통해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

사도 바울의 네트워킹 교회발전은 에베소서 4장 11~16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몸이며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신다. 네트워킹 교회는 몸의 다양성(각 기관)과 통일성

31) Ibid., p. 354.

/연합(한 몸 됨)을 근거로 한다.

## 2. 네트워킹 교회발전의 신학적인 추구<sup>32)</sup>

교회가 독점하느냐 네트워킹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혹은 역행하느냐와 연관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열방을 향한 모델 국가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은 오히려 선민의식에 빠져 이방국가를 정죄하기조차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이루셨다. 그런데 교회들도 자기들의 축제 공동체가 되어 관심을 밖으로 돌리지 않았다.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머물러 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양 교회들을 홀으셨다.

하나님의 나라 특성은 승라(존 브라이트가 강조)와 힘(Power), 복음전파를 통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속적인 증가, 네트워킹 등이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네트워킹 되어야 한다. 교회들이 개교회주의가 되어서 우물 안 자기 교회 범주에 머물러 있으므로 교인들을 돌보는 단일한 위치에 머물러 있을 때, 사탄은 교회 밖 사회와 세상을 장악하여 교회를 공격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를 점령하기 보다는 사회로부터 손가락질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현상이 바로 그러하다.

교회들은 네트워킹 연합하여 사회를 점령하므로 복음의 영향

력을 미치는 이미지(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지구는 슈퍼 도시 패턴으로 치닫고 있다. 도시의 특성은 센터, 다양성, 네트워킹이다. 네트워킹 교회 발전은 도시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바람직한 교회 모델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사람)이다. 네트워킹 교회는 가톨릭 교회와는 차이점이 있다. 가톨릭 교회는 건물과 같이 층을 쌓아가고 있다.

21세기는 네트워킹 시대에 돌입했다. 세상의 네트워킹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네트워킹 교회는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남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위한 태도에서 남을 위하여 사는 근본적인 신앙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네트워킹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갖추어 가며 기독교의 생명력을 연결하게 된다. 이렇듯 네트워킹 교회는 궁극적으로 교회연합을 도모하므로 세계교회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도 세계화, 문화도 세계화되고 있다. 세계교회를 네트워킹하므로 네트워킹 교회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을 네트워킹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역에 포함시키는 사역, 네트워킹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결국 네트워킹 교회 발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교회 안의 여러 은사들과 직분들의 네트워킹이다. 둘째, 한 도시(지역) 안에서의 교회와 교회의 네트워킹이다. 셋째, 네트워킹된 교회의 이웃과 사회에 대한 네트워킹이다.

교회 안의 여러 은사들과 직분들의 네트워킹

교회의 교인들은 점점 관객으로 변모하고 있다.

32) 맥가브란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교회성장학자인 크리스티안 쉬바르츠는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는 책에서 교회발전의 8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랑 있는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델러스 신학교의 교회 개척 및 성장학자인 오브리 멜퍼스는 7대 교회성장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강한 소그룹 조직망”을 포함하고 있다.엘머 타운즈 편, *op. cit.*, p. 113 참고.

윌리엄 맥레(William McRae)는 오늘날의 교회를 비유하여 마치 축구 경기장의 모습과 같다고 하였다. 즉 교회에 운집하는 수많은 성도들은 경기장의 관객으로, 격무를 감당하는 교회의 유급 직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로 비유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안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결국 관객으로 전락한 대다수의 성도들은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요 평가자일 뿐이고, 섬김과 봉사의 여러 업무는 유급 직원과 소수의 평신도 헌신자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다<sup>33)</sup>.

교인들의 은사를 발견하여 네트워킹 배치하고 발전시키는 은사개발 사역이 필요하다(하이בל스 외 2004 참고). 교회 안의 여러 은사들과 직분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몸 된 교회의 유기적인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네트워킹은 새로운 발달 사역의 방법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킹에 참여한 자들이 서로로부터 상호 작용하고 배울 때 그들의 생각과 정신을 확장시킨다”<sup>34)</sup>. 맥가브란 박사가 자신의 교회성장학에서 말하는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Multi-Individual, Mutually Interdependent Conversion)” 모델<sup>35)</sup>도 일종의 교회 안에서 네트워킹으로 볼 수 있다.

33) 빌 하이בל스 외, 「네트워크 은사발견 사역」 백순 외 역 (서울: 프리셋트, 2004) 참고

34) 하비 콘 *op. cit.*, p. 370.

35)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죽속운동(집단개종, People Movement)과 군선교” 「군선교신학 2」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pp. 29-33, 36-38을 참조할 것.

## 교회 간의 네트워킹

한국교회는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다른 교회에 대한 무관심, 교회 간의 경쟁,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이 팽배해 있다. “세계 도처의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많은 교회들처럼 이 교회들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근본적으로 서로가 깨닫지 못한 다”<sup>36)</sup>.

병원에는 많은 진료 분야가 있고 어떤 환자를 온전히 치료할 수 없으면 다른 병원에 보내기도 한다. 병원은 계약회사로부터 약과 치료 물품들을 공급받는다. 다시 말해 동네 의원과 소규모 병원과 종합병원이 질서 있게 공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자기 교회가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교회에서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 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근 교회와는 경쟁을 하고 자기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 교회의 이웃과 사회에 대한 네트워킹: 약한 세력의 역공격 예방

현재는 네트워킹의 힘이 지대하기 때문에 네트워킹의 구조 안에 들어와서 네트워킹 그룹을 지배하여 그룹을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네트워킹의 최종 목표는 밖으로 이웃과 사회를 향해야 한다. 교회가 네트워킹 되지 않으면 이웃과 사회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교회가 네트워킹 되었을 때 힘이 있으며 나름대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메시지에 영향력이 있다. 특별히 한국사회는 작은 것은 무시하고 큰 것은 무비판

36) 하비 콘 *op. cit.*, p. 368.

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회구원’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복음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도시교회에서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배척당하기 쉽다. 대부분의 세계 선교사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보다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케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60-70%가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선교국인 우리나라보다도 더 복음화된 지역인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미 전해진 지역인 이 케냐에 머무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교인을 관리하고 교인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다.<sup>37)</sup>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자기 교회 주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회를 네트워킹하여 복음화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네트워킹 교회발전으로 변형(Transform)되어야 한다.

도시교회의 근본 죄는 지역할거인 교구주의, 즉 교권적 편협주의이다. 교회들과 목사들은 때때로 교회의 내부 사역과 그 기관의 존재의 유지에만 너무 몰입하게 되어 자기 주위에 있는 삶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린다. 심지어 전도는 복음의 증거에서

37) 필자 가정은 2004년 미국 하딩대학교에 머무를 때, D. Min 책임교수로부터 추수감사절 식사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웃의 아랍 과부 한 사람도 초대를 받아서 우리 가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웃과 함께하는 크리스천 교수 가정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것이 교회와 크리스천의 네트워킹 사명이다.

회중의 교인 유지와 수입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 세신자 양성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전형적인 도시교회는 생존 신성에 사로잡힌다. 또 전형적인 도시교회는 때때로 그 도시에서 특별히 초점, 목적, 신학이 다른 그룹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운 때를 갖는다<sup>38)</sup>.

사도 바울은 그의 교회들에게 자기 도시들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교회가 네트워킹 교회 발전을 통하여 사회와 연결된 네트워킹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공격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의 정치권이 다름, 분쟁, 혼란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 지도자가 정치권에게 화합하라고 권면했다. 그런데 정치권은 오히려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싸우고 분열하지 말고 연합하라고 충고했다. 교회가 교회의 네트워킹, 사회와의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면 사회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게 된다. 과거 운동권의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닌 학생들이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교회가 운동권의 타도 대상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전형적인 도시교회의 편협적인 교구주의는 교회

38) 하비 콘 *op. cit.*, p. 360.

가 그 도시의 깊은 악을 대면하는 것을 막아 버린다.....자유주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아주 흔히 어둠의 왕자를 무시하면서, 선한 공동체 조직이나 교육이나 계몽이 이들의 도시를 상당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복음주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종종 사단을 가볍게 여긴다. 복음주의 공동체는 자기 자신의 교회들에만 고정시키고 개개인들에 대한 악의 음모에 고정시킨 나머지 사단이나 그의 정사들의 권세 범위를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실제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어떻게 도시의 구조 세력들을 소유하여, 집단적이고 심지어는 조직적인 정치, 경제, 사회학에 그러한 세력들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우리는 우리 이웃 사회, 우리의 더 큰 공동체, 우리의 도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 거주 상황들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분과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환경들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들도 역사하면서 도시의 모든 개개인들을 통제하고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법적, 사회적, 문화적, 교회적 구조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통제하려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에 요청하시는 초월적인 도시 전쟁터이다.

교회, 목사들, 교인들은 어떻게 외딴 섬 성격과 편협한 교권주의를 극복하여,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 소명에 응답하기 시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네트워킹으로 시작해야 한다<sup>39)</sup>.

39) Ibid., p. 360f.

### 3. 군인교회의 네트워킹 교회발전

민간교회는 교파도 많고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군인교회는 단순하다. 군인교회 신자들도 단순하다. 교파에 크게 의존하지도 않는다. 이미 여러 교파의 군목들을 통해 신앙지도를 받았고 어느 교파 군목에게 세례를 받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단점은 연합하고 네트워킹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가 힘들다. 반면에 군인교회들은 군대 조직체계 네트워킹과 더불어 연합과 네트워킹 교회발전을 도모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군대는 어느 조직보다도 잘 조직되고 훈련된 네트워킹 환경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다른 기관은 독불장군으로 사장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군대는 지휘관 혹은 어느 누구 혼자서 랍보 시나리오로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지휘관으로부터 말단 사병에 이르기까지 명령 체계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참모와 지원부대가 지휘관을 보좌하고 있으며, 넓게는 모든 부대원이 네트워킹 되어 있다. 군대는 함께 움직이고 함께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아군끼리의 통신 네트워킹은 전투 임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군목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야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대와 동떨어진 사역을 하게 되고 부대 전체에서 군목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게 된다. 군인교회가 교인들만의 친교와 신앙도모의 패턴을 가진다면 부대 전체에서 군인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게 된다. 군목은 지휘관, 장교, 부사관,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다니면서 모두를 네트워킹할 때 부대 전체에서 군목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지 않고 인식이 좋게 된다. 군

인교회가 지휘관 장교 부사관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종부로부터 다른 처부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면 군목의 사역과 군인교회의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보다는 부대의 여러 사람들과 조직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기 쉽다.

실제로 필자의 군목 경험을 통해서 보면, 군목이 어려운 점은 군목은 한 사람인데 많은 부대원들, 처부를 다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부대원 어느 처부를 소홀히 하면 금방 군목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군목도 온 부대 지역을 다니면서 네트워킹 군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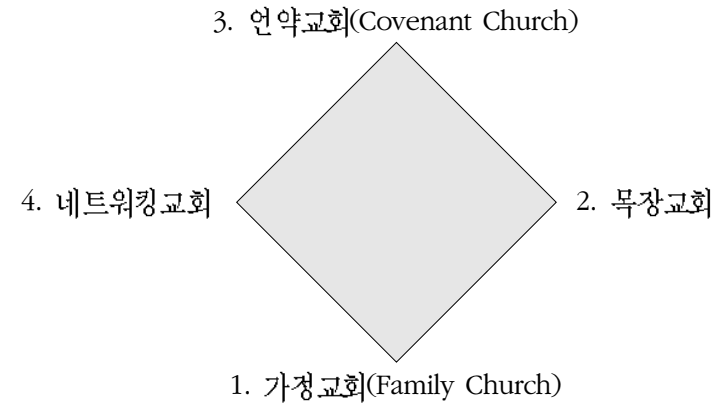
군선교 사역자들은 일단 불신세계에 뛰어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도 발생한다. 이 때에 군인교회 네트워킹을 통해 공동대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인교회 안에도 신실한 고급 장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군종목사단도 일종의 네트워킹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기술병과학교 군종참모 제직시 부산지역 군인교회 연합 제직수련회를 주관한 바 있다. 부산지역에 있는 군인교회 제직들 모두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군목들과 민간교회 목회자들을 강사로 제직수련회를 가지므로 은혜롭게 군인교회로서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었다.

#### IV. 결 론

이상 논의된 교회발전 모델들을 정리하여 다이아몬드 도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셀 교회의 대안(보충)으로서 가정교회 발전을 도모하므로, 셀 가정교회 조직으로 된 목장 운영과 평신도 목자훈련을 도모하는 목장교회 발전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바로 선 언약교회를 세워서 교회 내의 은사 직분, 교회와 교회, 교회와 이웃 사회를 네트워킹하는 네트워킹 교회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군인의 최종 목적은 승리이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교회도 승리한다. 언약공동체로서의 올바른 교회의 발전, 목자훈련 교회 발전, 가정교회의 발전, 네트워킹 교회 발전을 도모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군인교회 모델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군인교회를 발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군인교회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군목회자와 군인교회의 몫이다.

## 참고문헌

### 공통(일반)

- 정두영, “족속운동(집단개종, People Movement)과 군선교”. 「군선교신학 2」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 존스톤, 패트릭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큼니다」 이창규, 유병국 역. 서울: WEC 출판부, 2000.
- Patrick Johnstone.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 콘, 하비 외. 「도시교회 개척부터 폭발성장까지」 강승삼,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 Conn, Harvie M. Ed. *Planting and Growing Urban Churche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7.
- 타운즈, 엘머 L 편. 「전도와 교회성장의 모든 것」 홍용표, 최현서 역. 서울: 서로사랑, 1998.
- Elmer L Towns. Ed.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Regal Books, 1995.
- Engle, Paul E. and Gary L. McIntosh. Eds. *Evaluating the Church Growth Movement: 5 View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04.

### 셀 교회의 성장

- 변재창, 「작은목자 훈련」 서울: 두란노서원, 1988.
- 육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8.
- 니콜라스, 론 외.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한

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89.

브루스 A. B. 「열두 제자 훈련」 김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Gibbs, Eddie. *The Ministry of Evangelism EV715*. D. Min. Program Syllabus and Lecture Outlines. Pasadena, C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6.

Eddie Gibbs 박사는 풀러 신학교 교수인데 교회성장학 교수로 D. Min. 과정에 초대되어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 책은 요약 형식으로 전도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제8장에서는 “소 그룹을 통한 전도”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 그룹의 성경적 이론과 소그룹의 장점 등을 참고할 수 있다.

Reid, Clyde. *Groups Alive-Church Alive*. New York: Harper and Row Pub. Co., 1969.

Richards, Lawrence O. *A New Face for the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70.

Verkuyl, J. *The Massing of Liberation in our Age*.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 Co., 1970.

### 건강한 교회의 성장

릭 워렌,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7.

Rick Warren, *The Purpose-Driven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5.

언약공동체로서의 교회(올바른 교회) 발전

벤 앵겐, 찰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Charles Van Engen, *God's Missionary People*.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Company, 1991.

네트워킹 교회발전

앤더슨, 리드 「21세기를 위한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솔로몬, 1997.

Leith Anderson,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Bethany House Publishers, 1992.

하이벨스, 빌 외. 「네트워크 은사발전 사역」 백순 외 역. 서울: 프리젠프트, 2004.

Bruce Bugbee, Don Cousins, and Bill Hybels. *Network Kit Participant's Guide*.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부록

##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 한국교회 군선교와 비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은 6·25 환난중에 군종목사제도가 창설되어 지난 50여 년 동안 외적으로는 군인 교회당 건축, 내적으로는 진중세례운동 전개로 바른 신앙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신앙전력화와 민족복음화를 향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 군선교는 비전2020운동의 실천으로 군·민족·인류복음화에 기여할 것이며, 기독교 육성으로 건강한 국가와 밝은 사회건설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영역	구분	전략적인연	효과도	목표
군종활동	육·해 군	정신전력 측면	사고예방·무형전력증대	신앙전력화/강군육성
군선교사역	한국교회	선교적 측면	영혼구원·연합·사법구원	군·민족·인류복음화

군선교의 한국교회 공헌도		
구분	공헌도	세부사항
1970년대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	1969년 전국선교사역운동, 제1차 진중세례운동 전개, 초교과 학교회 설립으로 전국선교사역 추진(한·한국기독교교단연합회)을 설립함으로 197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한국교회의 민족복음화를 위한 구상적인 역할로 밑거름이 되었음.
1990년대	한국교회 재건의 불씨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후 한국교회의 상황이 경제 감소되고 있을 때 1990년 육군훈련소에서 개최된 제2차 진중세례운동으로 청년전도를 주도하면서 구체적인 민족복음화의 청사진을 한국교회에 제시하면서 한국교회 재건의 불씨가 되었음.
한국교회 연합사역의 모델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전군에서 실시되는 제2차 진중세례운동 후 11월 22일 군선교 센터인 육·해·공군본부교회당 건축 등 초교과 학교회 설립으로 민족복음화를 통해 민족복음화, 나아가 인류복음화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선교전력과 함께 21세기 한국교회의 성장 및 영혼구원운동을 위한 주춧돌이 되고 있음.
2000년대	21세기 기독교운동 주도	

군선교 5대 비전		
비전목표	비전결실	세부사항
신앙전력화	필요의 강군육성	장병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여 사기진작, 사고예방, 명확한 병영생활에 기여.
민족복음화	기독교신자국가 건설	비전2020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전국민의 75% 이상을 복음화하여 한국교회 부흥에 기여.
기독교인재양성	핵심인재를 3년 50대 육	기독교청년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향한 신교적 비전교회,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가경영의 전분야에서 리더십 지도자를 육성.
국가경쟁력	건강한 국가 건설	바른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들을 의하여 사회, 국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도록 함이고, 밝고, 건강한 국가를 건설.
기독교문화향상	밝은 사회 건설	세속화된 사회문화를 기독교문화로 전환하여 생명력있는 밝은 사회를 건설.

군선교 5대 비전 실천 3단계 전략			
사이클링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군인대전(일반교회)	군인대후(군인교회)	군전역시(군인교회)
대상	일반기독교청년	불신자	기독교장
전략	군선교사 파송	전도, 결신, 수세, 양육, 결연	민족선교사 역과송
목표	사명자 훈련	군복음화	민족복음화

군선교 10대 특징	
구분	내용
1. 대상적인연	-신체와 지성 등 모든 면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우수한 젊은이들, 몸이 있고 머리가 있고, 내일의 주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2. 기능적인연	-순환 조직사회라는 점, 매년 37만 명씩 입대하고 전역하는 젊은 할상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새로운 인물이란 점이다.
3. 동원적인연	-치위원이 명령하면 일시에 수백명, 수천명, 수만명이 집결할 수 있는 곳이다.
4. 심리적인연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 본성을 갖고 있다. 사령하는 부모형제 절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그들로서는 심리적으로 불안, 위축, 긴장된 상태이므로 순순한 어린이와 같은 육체가 되어 있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5. 안보적인연	-장병들이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 생각지 않는 사령관이 확립되어 있을 때,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군대의 6일 전쟁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
6. 교회선교연	-연간 22만명씩 세례를 준다하는 일, 1회에 5천명, 6천명씩 세례 주는 나라라는 지상에 어느 곳에도 없는 한국교회만이 갖는 유일한 축복이다.
7. 파급적인연	-우리는 성경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으므로 그 가정이 구원받고 로마 군대로, 세계로 파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한명이 두명, 두명이 네명이라는 기와 급수적인 파급효과가 전 국민의 75%를 신자화하겠다는 곧 '비전2020실천운동'이라는 청사진을 한국교회에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8. 경제적인연	-성경의 달란트 비유와 씨앗 결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작은 투자로 결실을 크게 맺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는 플러스를 얻을 수 있다. 일반교회에서 불신자 한명 전도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인가? 1년간 약 9백만원을 투자해서 3천명 세례신자를 만들 수 있겠는가? 군선교는 작은 투자로 확실한 결실을 맺는 경제성이 있는 선교영역이다.
9. 시간적인연	-일반적 시제로는 국가가 존립하는 동안에는 계속된다. 남북통일이 되어도 굳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 우리의 주변 열강은 일본, 중국, 러시아이며, 신앙적 시제로는 우리 모습 때까지 군선교는 지속될 것이다.
10. 연합적인연	-한국교회는 교단조직, 개교회주의의 정서에 붙들려 있다. 그러나 군인교회는 교파가 없다. 또한 교단을 초월하여 약 120억원이 소요된 육·해·공군본부교회 예배당을 53억 동안 연합으로 추진하였으며 지금의 진중세례식을 통한 비전2020 실천운동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협력하고 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연합사업과 운동의 모델이 군선교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 비전 2020

### 약속의 말씀

-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속 13:8)
- 나는 저와 하나님이고 저와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

### 비전2020운동이란?

#### — 애국애족운동, 신앙전력화운동, 21세기기독교운동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의 결실로 매년 군인신자 25만명을 일반 군선교 회원교회로 연결, 사람의 양육을 통해, 다가오는 2020년 3,700만명(전 국민의 75%) 성도의 나라를 만들어 군·민족·인류복음화에 이바지하므로 ◆국가적으로는 모범 국민육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애족 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화 운동이요,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입니다.

### 전략

3천7백만 성도의 나라	군인교회	군인교회 연합회	군인교회 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앙전력화 : 사고예방, 사기진작, 명량한 병영생활 조성</li> <li>-불신전우전도 수세 연결</li> <li>-매년군인신자 25만명 배출 (군세례인원 22만명 + 입대세례교인 3만명)</li> </ul> </li> <li>▶ 핵심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생명살리기 5대 실천사항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세기 기독교운동 실천</li> <li>-교단, 교회 연합사역 실천</li> </ul> </li> <li>▶ 핵심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선교사역 종합관리 실천</li> <li>-회원교회 육성</li> <li>-군선교 현장사역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회부흥 : 미래출석교인 등복 (매년군인신자 25만명 영입)</li> <li>-지역복음화 : 625만명 믿음의 가정 (매년 25만명 × 25년)</li> <li>-민족복음화 : 3,700만 성도의 나라 (625만명 × 4인가족 + 1,200만명)</li> </ul> </li> <li>▶ 핵심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적용</li> </ul> </li> </ul>

### 한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군인교회)

구분	실천사항
1. 불신 전우 전도 2. 결신 전우 세례 3. 초신 전우 양육	· 불신장병대상 적극적인 전도 · 신교대, 일반부대 등 수세 인도 · 1:1 사랑의 청지기 선임 결연(전담명 면담) · 예배참석, 성경공부, 교회, 봉사활동 등 · 군인신자카드 작성 제출
4. 양육 전우 결연 5. 결연 전우 관리	· 일반교회 결연 후 양육상황 점검

### 사람의 양육 10대 실천사항(군선교위원회)

구분	실천사항
1. 사람의 청지기 2. 사람의 등록 3. 사람의 기도 4. 사람의 편지 5. 사람의 선물 6. 사람의 심방 7. 사람의 초청 8. 사람의 영접 9. 사람의 전도 10. 사람의 헌금	· 1:1 집중관리자 선정, 전담부서 조직 · 연결 군인신자를 미래출석교인으로 등록 · 1:1 기도실천, 공석행사 지도 · 서신, 주보, 도서 등 우송 · 마음을 담은 기호품을 선물 우송 · 직접 부대 방문 심방 · 휴가·외박시 교회로 초청 · 전역시 영접, 환영 예배 · 가족전도의 기회(명소) · 전도, 세례 등 선교비 후원

### 나와 우리의 사명은?

1. 기도하기 : 매일 순간마다 비전2020운동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참여하기 : 성기는 교회가 비전2020운동에 참여토록 권장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본교회, 군선교연합회)
3. 헌신하기 :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주변에 홍보하고 성기는 교회나 군선교연합회(회원가인) 등 단체에서 헌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 물질, 재능을 바쳐 실천합니다.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아주 특별한 선교, 곧 생명의 있는 선교를 실천하는 단체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입니다. 군선교연합회는 군복음화를 통하여 민족복음화의 결실을 맺고 나아가 인류복음화에 기여하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인 비전2020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군선교전담기관으로 군인교회, 일반군선교회연합회와 함께 군인교회당 건축, 진중세례식, 군인신자 결연 및 양육, 각종 교육 전도프로그램 등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정성 어린 후원과 기도속에 소중한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 3)

###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 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 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와 모임에서 다함께 낭독으로 기도 드리시면 됩니다. 또한 평소에 군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군선교 10대 중보기도제목”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군선교 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위하여(방해세력 결박)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이상 복음화를 위하여(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 건설)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인원 22만 명 결실을 위하여
4. 매년 22만 명 군인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을 위하여
5. 중보기도 동역자 22만 명 확보와 책임있는 기도 실천을 위하여
6. 30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군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 사역 헌신을 위하여
7. 병영 내 사고예방, 사기진작, 명량한 생활 등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하여
8. 모범국민 육성 및 인제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위하여
9. 군선교 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가족 전도 10대 프로그램 실천을 위하여
10. 기독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행진곡풍으로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1. 빛 으로 감 옷 입 은 순결 한 젊 은 이 들 을 보 소 서  
2. 힘 차 게 행 진 하 며 노래 하 는 청 년 들 을 보 소 서  
3. 믿 음 의 백 성 들 아 주 님 이 추 수 궤 을 부 르 신 다

오 주 여 저 들 의 심 령 에 임 하 시 읊 소 서  
당 신 의 것 이 니 양 처 럼 기 르 시 읊 소 서  
내 게 말 겨 주 신 생 명 과 물 질 을 다 바 처

당 신 의 강 한 팔 이 저 들 을 불 드 시 면 -  
승 리 의 대 장 예 수 저 들 을 통 치 하 사 -  
복 음 의 햇 불 되 어 아 깎 없 이 타 리 라 -

민 족 이 경 성 하 리 이 다 세 계 가 진 동 하 리 이 다  
교 회 를 뜨 겁 게 하 소 서 사 회 를 깨 끗 케 하 소 서  
주 님 다 시 오 시 기 전 에 인 류 구 원 밀 알 되 리 라

이 땅 위 에 태 어 나 서 할 일 도 많 다 만  
예 수 의 - 이 름 으 로 십 자 가 군 병 만 드 시 어

어 둠 을 몰 아 내 소 서 세 상 을 정 복 하 소 서  
문 화 를 정 케 하 소 서 비 전 을 품 게 하 소 서  
군 대 를 축 복 하 소 서 민 족 을 구 원 하 소 서

새 천 년 참 된 평 화 의 방 패 삼 아 주 소 서  
통 일 된 조 국 의 빛 과 소 금 되 게 하 소 서  
인 류 가 하 나 되 는 날 큰 영 광 받 으 소 서

# 비전 2020을 이루라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이 민 족 - 을 향 하 신 - 하 나 님 의 계 획 중 심 에 -  
수 백 만 - 의 생 명 을 - 우 리 통 해 살 리 신 주 님 -

청 년 을 - 살 리 라 는 - 소 중 한 부 르 심 이 있 어 - 선  
불 타 는 - 가 승 속 에 - 억 만 의 민 족 을 품 고 서 - 죽

교 의 큰 물 결 이 - 군 대 를 뒤 덮 었 도 다 - 그 -  
도 록 충 성 하 라 - 심 령 을 인 도 하 시 네 - 성 도

역 사 를 위 하 여 - 기 도 가 하 늘 을 - 찢 - 렸 도 다  
여 교 회 들 이 여 - 영 적 인 전 쟁 에 - 너 를 부 르 다

이 귀 한 영 혼 들 을 깨 워 내 음 성 을 들 게 하 라 -  
저 젊 은 영 혼 들 을 살 려 내 백 성 이 되 게 하 라 - 오

(남성) 라 너 하 나 님 의 사 람 아 - 가  
(여성) 비 전 20 - 20 을 이 루 라 -  
라 너 하 나 님 의 사 람 아 -  
비 전 20 - 20 을 향 하 여 -

# 아, 비전 2020이여!

빠르고 힘차게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나라와민-죽을사랑하라는 소명을안고바른  
사랑과섬김으로미래성도를 잉태하면서빛나  
신앙으로-필승의군대를-만들어왔네군과민  
은청년들-수없는세례로-구원하였네은백성  
죽 인류복음화를향한-비전 2 0 2 0  
이 환웃입고두손드는-이-천이십년  
복음으로통일된 조국을꿈꾸며 우리는달린다  
가슴박찬그날을 심장에새기며 우리는일한다  
믿음의-반석을닦고소망의기를높여라 담대하  
믿음의-반석을닦고소망의기를높여라 전진하  
라-두려워말라 주님말씀하신다  
라-함께하리라 주님말씀하신다  
비전 2 0 2 0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을걸  
비전 2 0 2 0 위하여 찬성하라 생명을걸  
고아-아 비전 2 0 2 0 이여

판권유

## 군선교신학 3

2005년 5월 30일 인쇄

2005년 6월 10일 발행

발행처/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02-744-2661~3, 02-3675-2020

홈페이지; <http://www.v2020.or.kr>

E-mail; [meak@v2020.or.kr](mailto:meak@v2020.or.kr)

제작처/ 쿼란출판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1005호

TEL/745-1007, 편집부/747-1212 / 743-1300/ 745-1301

영업부/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0502-756-1004

0505-745-1007

홈페이지; <http://www.qumran.co.kr>

E-mail; [qumran@hitel.net](mailto:qumran@hitel.net)

[qumran@shinbiro.com](mailto:qumran@shinbiro.com)

등록/제1-670호(1988. 2. 27)

값 12,000원

